

개신교 제주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5차 학술심포지엄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장소

제주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
(제주시 봉개동)

사 회 :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기 조 강 연 : 4·3 진실규명과 종교계 활동

양조훈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초청강연 1 : 제주 천주교회의 4·3 인식과 역할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초청강연 2 : 불교계 제주4·3 피해 연구 현황과 과제

한금순 (제주대학교)

발제1. 4·3사건 속의 개신교

발 표 : 김인주 (제주 봉성교회)

논 찬 : 오승학 (치유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발제2. 개신교 제주4·3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고민희 (연세대학교)

논 찬 : 고지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종 합 토 론

좌 장 : 주진오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공동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제주4·3 평화재단
JEJU 4.3 PEACE FOUNDATION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5차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개신교 제주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 ||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N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
- || 장 소 : 제주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제주시 봉개동)

“개신교 제주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N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김학중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뜻깊은 심포지엄에 발표와 논찬을 맡아주신 패널 여러분, 또 본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언론인,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시기에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들을 돌아보고,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 평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구체적인 작업과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N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협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 사회운동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교회협의 출범과 역사가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현재까지 15권의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자료집』이 간행되었으며(향후 5권 추가 발간 예정), 각계의 전문가를 집필위원으로 위촉해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통사를 집필 중입니다. 또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신학선언, 한국기독교 100대 인물·장소 선정, 관련 역사문화콘텐츠 제작, 기독교사회운동 사료실 설치 및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업을 감당하고 수행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광범위한 활동과 영역에 대해 그 성격을 규명하고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2019년 제1차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심포지엄의 주제를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체성”으로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연구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5·18 민주화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역할과 반성,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민족분단의 현실과 좌우 냉전 체제를 기독교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냉전과 한국기독교”라는 주제로 한국의 현대사 속 냉전의식과 체제의 극복을 위한 역사적, 신학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회협의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을 맞아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사회신조>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오늘에 계승할 유산과 과제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조명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주4·3 75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교회협이 제주4·3평화재단과 MOU를 맺은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에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학술심포지엄은 “4·3과 개신교”를 주제로 한국 개신교의 4·3 관련 연구와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4·3을 비롯한 폭력과 학살, 그로 인한 대립과 논쟁의 현장에서 화해와 상생, 평화를 위해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교회협 100주년 기념사업의 캐치프레이즈는 “다가올 역사, 기억될 미래”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교회협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까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를 재발견하고, 향후 걸어가게 될 한국기독교의 발걸음이 “다가올 역사”가 될 수 있는 뜻깊은 과정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응원, 따뜻한 후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NCK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중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로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기쁜 소식’(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한반도는 곧장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물리적인 분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이념적인 분열도 공고해졌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의 실패, 남북 단독 정부의 수립, 한국전쟁(6·25전쟁) 등을 거치며, 우리 민족 공통의 ‘기쁜 소식’은 사라지고, 남과 북은 각자의 이념과 유익에 맞는 내용을 선취하여 ‘기쁜 소식’으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측’의 복음이 ‘상대 측’ 절망이 되고, ‘상대 측’의 복음이 ‘우리 측’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분열과 미움의 시대적 흐름에 교회 역시 동참하였습니다. 한반도라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국의 교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반공 전선에 섰습니다. 사랑의 종교, 평화의 종교임을 자처하는 개신교가 손과 입에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교회는 전쟁과 그 전후 시대에 구호 사업과 재건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했지만, 그 사랑의 손길은 ‘상대 측’까지 닿진 못했습니다.

전쟁 이후로 7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사회와 교회는 ‘좌우’ 이념대립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공간, 제주는 이념대립의 최전선 중 하나였습니다. 일제 말기부터 중요한 요충지로 여겨졌던 제주는, 미군정에게도 ‘상대 측’에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섬인 제주 안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인 제주4·3은 수 만 명의 죽음과 생활터전의 소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무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교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피해에 집중하고, 제주4·3을 ‘폭도’들의 ‘폭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주4·3, 7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도 개신교 안에는 제주4·3을 ‘폭동’으로 바라보는 교회와 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동시에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제주4·3을 ‘항쟁’으로 보는 시선 역시 교계에서 상당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양 입장은 서로 간의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나 이념을 떠난 학문적 접근에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개신교 제주4·3 연구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학술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일반과 이웃종교(불교, 천주교)의 제주4·3 연구와 운동의 내용을, 2부에서는 개신교와 제주4·3을 주제로 하는 발제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강연자와 발제자, 논찬자 전원을 제주도민이거나 제주가 고향인 분들로 구성하여 '종교를 가진 제주인이 말하는 제주4·3'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웃종교 파트에 같은 '기독교'에 속하는 천주교를 초청하였기 때문에, 교회협은 본 학술심포지엄의 제목과 내용에 '기독교' 대신 '개신교'를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주4·3,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동시에 교회협이 제주4·3평화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4·3과 개신교”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교회가 냉전과 이념대립의 담을 넘어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총무 김종생

축사

1908년 초 제주에 입도한 이기풍 목사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제주의 신앙공동체와 만나며 제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장로교회만이 존재했던 제주 땅에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입도하여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제주교회는 30개가 넘는 교파와 460개가 넘는 교회, 6개의 협의회·연합회(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입도하며 제주교회의 다교파 시대가 시작 된 1951년은 4·3사건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날 다양한 교파와 교회가 협력하며 연합하고 있는 제주교회의 모습은 4·3사건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제주교회는 4·3사건을 직접 다루는 것을 꺼리거나 무척 조심스러워하였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또는 작은 단위의 연합으로 4·3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었지만, 제주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4·3사건을 추모한 것은 2018년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관하였던 “치유와 회복을 위한 4·3 70주년 연합 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다시 이와 같은 연합예배나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차에,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제주4·3평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제주에서 “기독교와 제주4·3사건”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본 학술심포지엄이 제주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생명과 평화의 가치에 입각하여 4·3사건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술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한 관계자와 실무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제주4·3평화재단, 한국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제주NCC,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이상구

목 차

■ [인 사 말] 김학중 (NC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1
■ [권 두 언] 강연홍,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총무)	3
■ [축 사] 이상구 (제주NCC 회장,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5
■ [기초강연] 양조훈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4·3 진실규명과 종교계 활동	9
■ [초청강연.1]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제주 천주교회의 4·3 인식과 역할	25
■ [초청강연.2] 한금순 (제주대학교 사학과) 불교계 제주4·3 피해 연구 현황과 과제	41
■ [제1발제] 김인주 (봉성교회 담임목사) 4·3사건 속의 개신교	55
■ [제1논찬] 오승학 (전 치유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대표)	68
■ [제2발제] 고민희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개신교 제주4·3 연구의 현황과 과제	75
■ [제2논찬] 고지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93
■ [종합토론] 전체 발표자 및 토론자 좌장 :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	96

일 정

사회 : 손승호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

시 간	내 용	
14:00~14:10(10분)	인사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14:10~14:40(30분)	기조강연	
14:40~15:00(20분)	초청강연.1	
15:00~15:20(20분)	초청강연.2	
15:20~15:30(10분)	휴 식	
15:30~15:55(25분)	제1 발제	
15:55~16:05(10분)	제1 논찬	
16:05~16:30(25분)	제2 발제	
16:30~16:40(10분)	제2 논찬	
16:40~17:30(50분)	종합토론	

기조강연 : 양조훈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진실규명과 종교계 활동



4·3, 1987년 6월항쟁 계기로 지하에서 나온다

진상규명운동 촉발



기존의 '공산폭동론' 맞서 '민중항쟁' - 반미운동으로 시작

- 광주 5·18항쟁 영향
- 1987년 제주시 남문로터리 시위 모습



이어진 수난

- 4·3 추모제도 지지하는 경찰 최루탄 쏘고 400여명 연행
- 1991. 4. 3

4·3 50주년 1998년 특별법 제정운동 본격화

전국적으로 확산



4·3특별법 촉구 서울 거리시위 (1998)

- “50년을 넘길 수 없다!
- 4·3 진실 규명하라!”

4·3 서울 거리행진 4월 4·3 50주년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를 끝낸후 합정관에서 대 항로까지 벌어진 거리행진은 2천여명이 참가했다. (김기윤기자)

4·3특별법 쟁취 한마음

- 도의회, 시군 의회
- 4·3유족회, 24개 시민단체
- 서울 범국민위원회 결집



특별법 제정과 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정부의 진상조사



4·3 특별법 제정에 서명하는
김대중 대통령 (2000. 1. 11)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2003. 10. 15)
인권유린 규명에 역점을 둔 조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규정



대통령의 사과 (2003. 10. 31)
- 이념누명 벗기는 계기

7대 대정부 건의(2003년)와 높은 이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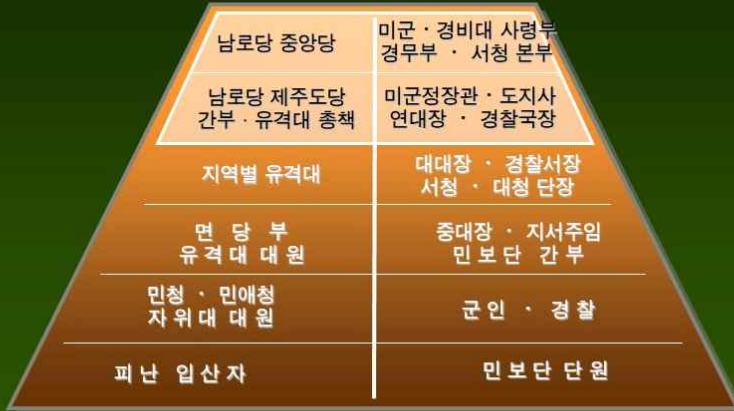
과거사 해결 시동

- 1 제주도민과 4·3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
- 2 4·3 사건 희생자 추모기념일 지정
- 3 4·3진상조사보고서의 평화·인권교육 활용
- 4 ‘4·3 평화공원’ 조성 정부의 적극 지원
- 5 생활이 어려운 4·3유족에 대한 실질적 생계비 지원
- 6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복원 지원
- 7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 지속적 지원

인식의 전환: 분단과 냉전이 빛은 희생

희생자 확대와
화해운동 촉진

미군정 → 이승만 정권



입산자 가족
민간인

밀 고 자

토벌대 가족
민간인

세계평화의 섬 (2005년) 국가기념일 (2014년)

후속조치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선포

- 1) 삼무정신의 전통 계승
- 2) 4·3 비극의 화해, 상생 승화
- 3) 정상외교 통한 세계평화 기여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박근혜 정부)

제주가 선택한 표어

-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화해운동 확산 ⇒ 4·3 치유에 큰 영향

화해 실현

2013년 갈등 심했던
4·3유족회 - 경우회
화해 상생 선언



4·3유족회 경우회 화해 회견 (2013. 8. 2)



해마다 각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참배

제주도는 이제 4·3 치유 위해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민과 관이 하나로 뭉쳤다.

4·3 70주년 전환기 거쳐 특별법 전면개정(2021년)

과거사 해결 선도

- 1 4·3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9천만원 정액제)
- 2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일반재판 특별재심 신설
- 3 정부위원회 추가진상조사, 실무조사는 평화재단
- 4 보상금 상속순위는 현행 민법으로
- 5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6 4·3트라우마 치유사업 국가 지원
- 7 보상 대상은 기존에 결정된 4·3희생자

2023년 7월 4·3특별법 재개정 =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시행

4.3 당시 제주불교 피해

4.3과 불교

(인명 및 물적 피해)

〈인명 피해〉

- 승려 희생자만 16명 (주로 토벌대에 의한 피해)
- 관음사 오이화 주지스님 고문으로, 이일선 스님 수장 등
- 사찰 관계자 및 신도 다수 피해

〈사찰 피해〉 도내 80개소 중 70%에 이르는 56개소 피해 입어

- 전소된 사찰만 16개소
- 관음사 / 서관음사 / 석굴암 / 소림사 / 용장사 / 월정사
- 법화사 / 원만사 / 광룡사 / 귀이사 / 극락사 / 금천사
- 묘음사 / 백양사 / 수덕사 / 외골절

〈제주불교 피해 많은 이유〉

- 1) 오랜 전통의 전래종교, 도민과의 밀착성
- 2) 일부 승려 4.3봉기에 직간접 참여
 - 이일선 스님 제주민전 의장, 이세진 스님 무장대
 - '47년 3.1 조의금 모금에 제주불교 교무원 참여



1930년대 관음사의 모습

관음사에서 4.3 희생자 천도재 시작하다

4.3과 불교

〈제14대 관음사 주지 지선 스님의 증언〉

“1976년 31세의 최연소 나이로 관음사 주지 발령을 받고, 제주에 왔다. 첫날 밤 바닷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수많은 사람들이 떠다니는 모습의 꿈을 꿔다. 이상해서 다음날 연배 많은 보살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4.3 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가들이 천도 받고 싶어서 꿈에 나타난 것 같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4.3 영혼 천도하는 백일기도를 드렸다. 조계종 서운 종정, 고암 전 종정, 제주출신 서경보 스님 등을 차례로 초빙해서 법문을 듣기도 했다. 신도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마지막 날 영가 위패를 실은 배를 만들어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바다에 띄웠다.”



〈1992년 이후 해마다 천도재 봉행〉
- 2017년부터 4.3공원에서도 천도재



〈2003년 관음사 주최 4.3문학상 제정〉
- 이후 제주4.3평화문학상 토대

4.3 불교계 피해 조명한 세미나

4.3과 불교



〈제주불교 최초의 4·3 진실규명 세미나〉

- 2017년 6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 : 제주불교연합회, 도의회 길상회
- 한금순 박사 주제발제
 - 불교계도 4·3 기억 활동 주도적 펼쳐야
 - 제주불교 피해상황 역사적 평가 한목소리

〈조계사에서 열린 4·3 70주년 세미나〉

- 2018년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주최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 주제 : 4·3항쟁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과 수난
(주제발표 : 한금순 박사)
- 전국종단에서 4·3 학술세미나 개최 의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4·3 70주년 추모 영산재

4.3과 불교

〈희생자 극락왕생발원 영산재〉

- 2018년 4월 3일, 광화문광장
- 조계종-4.3범국민위 공동주최
-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스님 등 집전
- 설정 총무원장, 박원순 시장 추도사
“4·3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
제주도민의 고통 치유 염원하는 마음
이념 떠나 평화 화해 시대 열길 기원”



〈조계종 전국적으로 4·3 70주년 추모행사 추진〉

- 전국 25개 교구 본사마다 4·3 추모 현수막 게시
- □ 전국 교구 본사마다 4·3 극락왕생 발원기도 봉행

불교 4·3 추모사업회 발족과 전국 전시회

4·3과 불교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

- 2019년 7월 19일, 관음사에서 발족
- 추모사업회 목적
 - 4·3 당시 불교계 피해 조사
 - 불교 희생자 추모사업
 - 4·3 통한 역사 및 인권교실 운영
 - 불교계 4·3유적 발굴 및 복원



<불교계 피해 '동백으로 화현하다' >

- 2020년 5월 11일, 조계사에서 개막
- 이후 전국 순례하며 전시회 개최
- 4·3의 아픔 예술작품으로 승화
 - '보리작가' 이수진과 김계호 작가 작품



관음사 4·3유적지 복원과 4·3피해 증언마당

4·3과 불교

<관음사 4·3 총체적 복합 유적지>

- 2021년 제주연구원 기초조사 실시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 4·3 당시 피난처이자 격렬한 격전지
 - 토벌대 의해 전소, 주지스님 등 희생
 - 2연대 제2대대 주둔지로 유적 남아
 - 숙영지, 초소, 무기고, 진지동굴 등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들 답사 모습

<불교계 피해 증언마당>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탐라성보문화원 / 도의회 4·3특위 주최
- 4·3 당시 희생된 스님들의 이야기
 - 가슴 아픈 역사를 상생의 역사로



불교연합 4·3 위령제와 피해 종교 지원 모색

4·3과 불교



〈제주불교연합회 4·3 추모위령제〉

- 2022년부터 연합사업으로 추진
- 2022년 평화공원, 2023년 함덕해수욕장
- 학살터 찾아가며 극락왕생 기원



〈4·3피해 종교단체 지원 특별법 개정〉

- 2023년 5월 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
- 2023년 7월 종교단체 지원 정책토론회

〈관음사 허운 주지, 4·3 치유에 앞장〉

- 제주불교연합회장으로 4·3 치유 연합활동 전개
- 2019년 뉴욕 UN에서 열린 4·3심포지엄 직접 참석
- 2021년 4·3특별법 개정위한 국회 방문 등 적극 활동



4·3 당시 제주천주교 상황

4·3과 천주교

〈피해상황과 천주교 움직임〉

〈피해 없음〉

- 4·3 당시 본당 2(제주/서귀포), 공소 2(신창/홍수) 있었으나 피해 없음
- 성직자 인명피해도 없었음

〈제주중앙성당 스위니 신부의 활동〉

- 1) 4·3 발발 원인을 '경찰의 폭력과 테러에 비롯된 것' 이라고 중앙에 보고
외신 기자에게 "제주도경찰이 일제 경찰에 비해 더 나쁘다" 피력
뉴욕헤럴드트리뷴(1948. 4. 28) '경찰 야만성이 제주도 내전의 원인'
- 2) 1949년 2월 '사망자 1만 5천명, 가옥 피해 1만채 이상' 보고
- 3) 1950년 유지사건때 "조작됐다" 고 중앙조사단에 진실 밝혀

〈천주교 신도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

- 1) 성당 밖 일반주민들의 희생 막는 일에는 한계
- 2) 지도급 신도 중에는 토벌대의 주역 역할도
- 3) 토벌대의 선무활동에도 참여

1987년 6월항쟁 직후 중앙성당은 '민주 성지'

4·3과 천주교

〈사제단 민주항쟁에 앞장〉

〈1987년 6월 제주사제단 단식기도〉

- 정의구현사제단,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시위대 중앙성당에서 철야농성〉

- 경찰에 쫓긴 시위대 성당 내 교육관에서 농성
- 사제단과 신도들, 장소와 음식 제공 후원
- 중앙성당은 '최후의 보루이자 민주화 상징'



중앙성당 1987년 민주항쟁 기념표식



1990년 중앙성당 교육관의 4·3 세미나

〈광주5·18과 제주4·3에 눈길〉

- 정의구현사제단과 가톨릭대학생연합회
- 4·3 추모미사와 마당극도 연출
- 성당 교육관에선 4·3 세미나 개최도

4·3 50주년 진실규명 촉구에 나선 종교계

4·3과 천주교



〈7개 종파 연합 진실규명 종교인대회〉

- 1998년 11월 30일, 성공회 서울대성당
- 천주교/기독교/불교/원불교/성공회 등
- '제주4·3 종교인 선언문' 채택
-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대통령이 나서야"

〈제주종교인협의회 주최 4·3 종교인대회〉

- 1999년 3월 29일, 서문성당
- 4·3특별법 제정, 미국정부 4·3 진실 밝히는데 동참하라고 촉구

〈4·3 진상규명운동에 앞장 선 임문철·문창우 신부〉

- 제주시민운동의 상징인 임문철 신부는 반평생 4·3 진실규명에 헌신
 - 1999년 도민연대 대표 등을 맡아 4·3특별법 제정 등 큰 족적 남겨
- 문창우 신부도 4·3 고충상담소장을 맡는 등 초기부터 활동

김수환 추기경도 4·3 진상규명 촉구

4·3과 천주교

〈천주교 큰 별 김수환 추기경 추천의 글〉

- 1998년, <4·3은 말한다> 5권 출간에 부쳐

“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단결과 진정한 화합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 진상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4·3사건은 재평가·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중략)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숨져 간 영혼들이 있다면,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은 산 자의 도리입니다.”



〈천주교에서 처음 열린 4·3 심포지엄〉

- 2013년 12월 8일, 제주 연동성당
- 주제 :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
- 주제 발제 : 박찬식 박사, 문창우 신부

“4·3의 아픔과 한 외면하고 복음 선포 못해 복음 선포하려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부터 죄의 부리 성찰하고 통회부터 시작해야”

천주교 제주교구가 다양한 4·3 행사 주도

4·3과 천주교

〈4·3평화공원에서 '십자가의 길'〉

- 2012년부터 강우일 주교 집전으로 진행
- 사회적 이슈를 그리스도 수난과 연결
- 2023년까지 다섯차례 진행
- 퍼포먼스 통해 억울한 죽은 님 위로
- 배우들의 혼신 다한 연기에 눈물바다도



〈2018년 4·3 70주년 대대적인 기념사업 추진〉

- 제주교구 내 4·3특별위원회(위원장 문창우) 구성
- 주교회의와 공동,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 2월 22일 명동성당에서 학술심포지엄
 - 전국 성당 '4·3 70주년 기념주간' 설정
 - 4월 7일 명동성당에서 4·3 추모미사 거행





〈천주교 4·3 70주년 추념미사〉

- 2018년 4월 7일, 명동성당 대성전
 - 미사집전 : 김희중 대주교(주교회의 의장)
 - 미사강론 : 강우일 주교(제주교구 교구장)
- “동학혁명, 3·1운동 등 저항정신 이어져 왔다.
4·3의 이름 주저해왔지만 이제 말할 수 있다.
4·3에 ‘항쟁’이라는 이름 붙여도 좋겠다.”

〈4·3 70주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별메시지〉

“모든 이들 마음에 치유 화해의 정신이 뿌리 내리길”

- 제주4·3 7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는 걸 알고 있다
- 이 행사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 항구한 평화 기초 위에 새로운 세상 건설 투신해야

4·3를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



〈교황대사 슈에레브 대주교 4·3 추모기도〉

- 2018년 7월, 평화공원 참배
- “주님께서는 끔찍한 학살 앞에서 눈물 흘렸을 것,
그 눈물이 우리 위에 내리사 아픔을 낮게 하소서”



〈중문성당, '4·3기념성당' 지정〉

- 2018년 10월 11일 제주교구
- 4·3 당시 학살당한 희생자 기려
무고한 주민 70여명 총살 당한 곳

〈4·3 진실 알리는데 열정 쏟은 강우일 주교〉

- 한국천주교 내 4·3 진실 알리기와 치유에 중추적 역할
- 교황 메시지 유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창안 진행
- 2019년 UN 4·3심포지엄 주제발표 등 다양한 발표
- 4·3진실과 미군정 역할 알리기 위해 수차례 미국 방문



《 “70년이나 머뭇거린 만남과 화해” 》

- 김인주 목사, <기독교사상> 2018년 기고문

“2018년 3월 30일 제주성안교회에서 연합기도회가 있었다. 70여 만에 사상 첫 4·3 합동 예배로 모인 것이다. 제주도내 17개 교단 450여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기독교교단 협의회의 주관으로 **비로소 제주 개신교는 4·3의 역사적 현실과 마주하였다. ... 교회에서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던 4·3의** 늦게나마 양지에 드러났고, 목회사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왜 제주 기독교는 그동안 4·3진영과 거리감이 있었는가?〉

- 1) 반공주의에 입각한 ‘공산폭동론’ 에 동조
- 2) 조남수 목사의 선무활동 공과와 편향된 저술
- 3) 제주출신 1호 목사인 이도종 목사 순교의 부각
- 4) 기독교와 서북청년회의 연계설
- 5)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는 외면

《인명 및 물적 피해》

〈인명 피해〉

- 목회자 1명 (무장대에 피살된 이도종 목사) - ‘순교자 이도종목사 성지’ 지정
- 교인 16명 (무장대에 의해 12, 토벌대에 의해 4명)

〈교회건물 피해〉 서귀포·삼양·협재교회 (이상 무장대), 조수교회 (토벌대) 등 4개소

〈교회사 기록〉

- 제주기독교는 4·3으로 크게 손해를 당하였다
- 산사람들은 기독교가 정치권에 가까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존재로 인식
- 그래서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조남수 목사의 선무활동과 저술〉

- 1) 선무활동으로 수많은 목숨 살려
- 2) 편향된 저술(1988년)로 빛 바래
(교계 검증 없이 반복된 인용)
 - ‘민중항쟁론’ 에 맞선 저술 의도
 - ‘남로당 중앙지령’ 등 강조
 - 저술 내용에 대한 반론도 줄이어



<4·3 50주년 맞는 날 모슬포교회에서 첫 행사>

- 1998년 4월 3일, 제주 서남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 4·3 50주년 기념강연 (강사 양조훈)

(민족선교연구소 주최 4·3행사)

(이사장 한도전 목사)

<민족화해 통일위한 교회사명 세미나>

- 1998년 6월 22일, 온양 그랜드파크호텔
- 양조훈 '4·3은 무엇인가' 강연 통해 회개 촉구

<제주지역 목회자 4·3 학술세미나 >

- 1998년 9월 21일, 기감 여선교회연수원
- 주제 : 제주4·3 해결의 과제
- 강사 : 서중석, 양조훈, 김종민



<감리회-기장 4·3 추모연합기도회>

- 1999년 4월 10일, 중앙감리교회
- 주최 : 기감 제주지방회, 기장 제주노회
- 4개항 결의문 채택
 - 정부 차원 4·3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 미국정부 4·3 관련 문서 공개 등

<예장 주최 4·3 치유기원 예배>

- 1999년 4월 21일, 제주성안교회
-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 4·3의 상처 치유를 기원하는 예배
 - "이 백성의 상처를 싸매소서"
- 4·3 보는 시각 서로 다른 고문승, 양조훈 강사 초청



〈물꼬 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화기행〉

- 2018. 3. 14. NCCK(총무 이홍정) 주최로 기행단 70여명 4·3유적지 탐방
- 기독교 교단 연합회 주최 최초의 4·3 행사여서 주목

〈평화재단과 MOU 체결〉

- 2018. 3. 28. 제주4·3평화재단과 NCCK
-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이해의 확산
- 분단과 냉전을 넘어 화해 상생 추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3 기도회〉

- 행사 이름 : 제주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 일시 : 2018년 4월 4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옆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 아픈 역사를 외면했던 시간 사과하는 성명 발표
- 우리 안의 무서운 폭력성 회개, 잘못을 사죄
- 십자가 아래 화해의 여정에 참여 다짐

〈제주 450개 교회가 참여, 회개와 각성〉

- 치유와 회복 위한 4·3 70주년 연합예배
- 2018년 3월 30일, 제주성안교회
- 주최 :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 회장 신관식 목사 설교 중



“우리에게 4·3으로 흘린 눈물이 있었나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제주도민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교단협의회 4·3 공동기도문〉

정죄하고 판단하며 스스로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죄악에 동참한 폭력성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제주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잠들지 못하는 분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 주소서

기장 총회 참석 목사 6백명 '진실 외면' 참회

4·3과 기독교

<4·3평화공원 연합예배, 헌화분향>

- 2018년 9월 19일, 4·3평화공원

- 주최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충섭 목사)

- 제주4·3 신앙선언

“진실을 외면해온 이 땅의 교회들이 역사적 무지에서 벗어나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제주도민들의 아픔과 상처 치유를 기원합니다.”



(기독교와 4·3 제조명한 논문들)

- 한국개신교의 제주 4·3사건 인식 연구 (2019, 장로회신학대학원 김신약)
- 기독교의 선행연구를 비판하고, 연대장 이름 딴 '함명교회' 분석
- 한국기독교 4·3 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2021, 연세대학교학원 고민희)
- 4·3을 둘러싸고 형성된 기독교 내 담론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

4·3 둘러싼 종교계의 최근 움직임

마무리



제주 천주교회의 4·3 인식과 역할

1. 머리말

본 발표문은 해방 후 발발한 제주4·3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교회의 피해 실태, 교회가 행한 선무·구호활동 등에 대해서 검토한 글이다.¹⁾

4·3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 위원회의 이름으로 2003년에 발간되어 그 대체적인 피해실태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종교계의 피해실태에 대한 규명은 과제로 남아있다. 종교계의 4·3 당시 피해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불교계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천주교 측의 서술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출간한 『제주천주교회 100년사』가 소략하나마 유일하다.

4·3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교회 측 자료는 거의 사라져 버려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당시 제주교회 선교사에 관한 편지가 아일랜드 콜롬반선교회 본부 문서고에 일부 소장되어 있어서 교회의 4·3 인식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²⁾ 제주본당의 세 신부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당시 천주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주요자료 외에도 선교사들이 미국 군인들과 접촉해서 구술했던 자료, 당시를 겪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증언록 등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2. 교회의 4·3 인식

무장봉기가 발발했던 1948년 4월 당시 제주 천주교회는 2개의 본당(제주본당과

-
- 1) 지난 2015년, 한국교회사연구소의 학술지 『교회사연구』 46집에 실린 논문을 일부 수정 요약한 글임을 밝혀둔다.
 - 2) 한국교회사연구소의 고 최승용 신부가 자료 열람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 자료를 활용한 최선희의 다음 두 편의 글도 참고되었다. 최선희, 「서양 선교사의 한국전쟁 예견 -외방선교회 관련 문서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23, 2004 ; 「냉전시대 캐롤 몬시뇰의 구호 활동과 그 의의」, 『교회사연구』 34, 2010.

서귀포본당)과 2개의 공소(신창공소와 용수공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을 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 10월 제주지역의 포교를 담당하던 도슨(손 파트리치오)·스위니(서 아우구스티노)·라이언(나 토마스) 신부 등 3명의 선교사들은 제주의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일제 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해방될 때까지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었다.³⁾

1945년 11월에 광주에서 요양을 하던 스위니(A. Sweeney, 徐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제주 본당의 제8대 주임으로 재부임해 오면서 제주본당이 부활되었다. 한편 일제 말기에 제주본당 주임을 역임했던 도슨(P. Dawson, 孫 파트리치오) 신부와 서귀포 본당의 주임을 역임했던 라이언(T. Ryan, 羅 토마스) 신부는 광주에서 요양을 하다가 1946년 9월에 휴가를 얻어 본국인 아일랜드로 귀국하였다.⁴⁾ 1947년 10월 10일에는 본국 휴가에서 돌아온 라이언 신부가 서귀포본당의 제10대 주임으로 다시 부임함으로써 서귀포본당이 부활되었다. 도슨 신부 또한 비슷한 시기에 본국 휴가에서 돌아와 1947년 12월경에는 스위니 신부가 사목하던 제주본당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헨리 신부가 1947년 11월 29일 쓴 편지에 도슨 신부가 곧 제주도에 갈 것이라고 했으며,⁵⁾ 1948년 4월에 미군정 군인들이 제주본당의 두 신부를 만난 사실로써 도슨 신부의 제주 복귀 시기를 미루어 알 수 있다. 1949년 4월 27일에는 스위니 신부가 본국으로 휴가를 떠났고, 7월 7일에는 휴가를 갔다가 돌아온 도슨 신부가 제9대 제주본당 주임으로 다시 부임하였다.

4·3을 겪던 시기에 제주의 신자 수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935~1936년의 신자 수가 529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태평양전쟁 때 감소했다가 해방 직후 복구되어 500명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창공소가 1947년 말에 신자 수가 1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49년 9월 1일 용수공소의 신자수가 150여명을 기록하는 등 새로운 영세 입교자가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해방 후 제주 천주교회는 제주본당과 서귀포본당이 부활하고, 신성여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등 차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3·1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발발하는 등 견잡을 수 없는 소요사태와 무력충돌이 빚어졌고 교회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3·1사건과 4·3봉기와 초기 무력충돌 사태 등 4·3 초기 제주의 사회적 상황을 직접 겪었던 사제는 제주본당의 스위니 신부와 도슨 신부였다. 이들은 1948년 4월 28일 제주를 방문한 『뉴욕헤럴드트리뷴』 특파원 레이몬드(Allen Raymond)와 『타임』

3) 이들의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경향잡지』 1946년 9월 1일자 : 윤선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4) 『경향잡지』 1946년 10월 1일자.

5)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7. 11. 29).

(Time)과 『라이프』(Life)지의 사진기자 마이던스(Carl Mydans)를 만난 자리에서 4·3 발발 초기 제주도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2명의 신부(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Austin Sweeney 신부와 에이레 도네갈 출신의 Patrik Dawson 신부)들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다. 그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본토에서 일제에 의한 투옥생활을 제외하면 각각 12년, 14년 동안 제주도에 살고 있다. “모든 이런 소요는 소련의 방식과 맞는다. 그러나 경찰은 좌익을 만들어 내고 있다.” 스위니 신부는 오늘 제주도를 방문 중인 미국 특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들 경찰관들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반란군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스위니 신부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극소수 -이들은 또한 [일제강점기] 지하에서 일본인들에 맞서 투쟁했다- 는 산간지대에 반란군들과 함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들 신부는 본토에서 들어온 경찰청장을 포함한 제주도의 경찰력이 “일제 경찰에 비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신부들은 또한 미국 당국이 현지 경찰에 심문을 위해 경찰 유치장에 있는 수감자 폭행을 중지하도록 자문했지만 방문 중인 미군 장교들이 등을 돌리기만 하면 폭행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의 천주교 신부들은 4·3 발발 초기 소요사태의 성격을 소련 방식인 좌익의 무력투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무장봉기가 일어난 주요 원인을 경찰의 테러와 탄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신부들이 미군 책임자에게 경찰의 테러와 고문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지만 미군정 측은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고, 미군 장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두지 않으면 끊임없이 경찰의 탄압은 계속된다고 보았다.⁶⁾

제주지역의 유지들은 1947년 3·1사건(경찰의 발포로 6명의 주민이 사망한 사건) 이후 경찰의 탄압에 대해 천주교 신부들에게 선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고창무(4·3 당시 제주도금융조합 이사)는 뒷날 당시 상황을 『조선일보』에 기고하였다.

이러한 큰일(3·1사건)을 저지른 경찰은 추호의 회오(悔悟)도 없이 그들의 죄악을 은폐하고 빨갱이 소탕의 공훈으로 조작하려고 갖은 탄압의 공작에 물샷 틈 없는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를 우려하는 몇 사람이 천주교 신부(당시 미군정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를 방문하여 선처의 수고를 청하였을 때에 “이런 야만적 행동은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신부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⁷⁾

6) New York Herald Tribune, 30 April 1948, Series A1838, Item 506/1,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 허호준, 『4·3, 미국에 묻다』, 도서출판 선인, 2021, 159쪽 재인용.

7) 고창무, 「한라산은 고발한다」, 『조선일보』 1960. 7. 17.

당시 『에이피』(AP)와 『유피』(UP)가 대부분 서울에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던 데 견주어 제주도 현지를 찾은 이들 두 명의 특파원은 4·3 초기 제주도를 방문한 몇 안 되는 외신기자들이었다. 레이몬드는 ‘경찰의 야만성이 제주도 내전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름다운 제주도에 휘몰아치고 있는 내전의 주요 원인은 경찰의 야만성에 있다”고 진단했다.⁸⁾

제주본당 두 신부의 입장은 그들 스스로의 인식이었겠지만, 교회 신도들의 눈과 입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주 천주교회 측은 4·3의 발발을 불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평화로운 해결을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 인식은 당시 제주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의 인식과 같은 것이었다. 1948년 4월 말 한라산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의 평화협상을 시도했던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에는 천주교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도 주둔 미군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대령은 귀순공작의 요점으로 민간인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민간인은 제주도의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감정을 판단하는 데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단, 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야지 원성을 사는 자를 기용하면 도민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제주도 유지들의 명단을 내놓았다. 나는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십 수 명의 협력자를 구할 수 있었다. 나의 비밀참모 역할을 하게 된 인물들은 제주신보 사장을 중심으로 한 박경훈 씨 형제, 좌달육·김대용 씨, 그리고 읍내 천주교 신부와 몇몇 신자였다. 도내 민정의 말단에 관한 정보는 천주교 신자들의 공이 컸다.⁹⁾

4·3의 해결 및 민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군정청의 군 장교들은 제주 현지의 신부들과 자주 면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주둔 제9연대 고문관이던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는 제주읍에 있던 스위니 신부, 도우슨 신부, 서귀포에서 제주읍으로 피신 온 라이언 신부와 친밀하게 교류했다. 라이언 신부는 1948년 후반에 사태가 악화되자 서귀포성당을 비우고 제주읍내 성당으로 옮겨와 세 신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쉬그룬드는 거의 매일 밤 성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한 뒤 카드놀이를 하면서 보냈다고 회고했다.¹⁰⁾

미군정청에서 제주에 보낸 파견대장 에드워드 콜린(Edward J. Colin) 중위가 20연대장에게 보낸 아래 보고서를 보면, 1948년 7월 파견대 소속 미군 3명이 성당을 방문하여 두 명의 신부와 당시 대내외 상황에 대한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8) 위와 같음.

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1994, 310~311쪽.

10) 허호준, 앞의 책, 289쪽.

1948년 7월 25일(일요일) 오전 9시 파견대(Task Force)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이 카톨릭 선교 건물을 방문. 스위니(Sweeny), 도슨(Dawson) 두 명의 신부와 전쟁 중 일본인들의 규칙, 한국의 현재 상황 등에 관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눔. 그들은 모두 미국인들이 떠난다면 그 날로 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¹¹⁾

이러한 제주교회 두 신부의 한반도 내전에 대한 예견은 골롬반선교회 소속 신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광주교회 소속 헨리 신부 또한 아일랜드 골롬반회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주 한반도 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슨 신부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만, 그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스위니 신부에 대해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가 집에 갈 수 있는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슨 신부는 오는 대로 곧 제주도에 갈 것이고, 오스틴은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소 떠나기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맥폴린 신부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오스틴 스위니)에게 가도 좋다는 허락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취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략) 이 나라에 곧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만일 공산주의자가 통치하게 된다면, 모든 일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미국이 한국군을 훈련시키고 군대의 장비를 갖추게 한다면 그들이 승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¹²⁾

오스틴 스위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까지의 3개월의 여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홍콩 또는 싱가포르까지는 비행기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보트를 타고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3년 이내에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5·10)선거 뒤에 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것으로 보이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선택적인 봉사법을 미국이 통과시켰을 때 그것은 거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법은 한정된 기간에 적용하려고 통과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은 그 한정적인 기간에 발발하기 마련입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완전히 청소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¹³⁾

이러한 헨리 신부의 계속된 한반도 내전 예견은 1948년 5월 직접 제주도를 방문한 뒤 4·3사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에 내려진 것이었다.

11) 주한미육군 군정청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및 분견대 제주도 파견대(Cheju-Do Task Force) 주간일지(1948년 7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미국자료편 ③]』, 83쪽)

12)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7. 11. 29).

13)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8. 3. 30).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준비가 거의 되었습니다. 저는 동양으로 오기 위한 모든 미국인들의 여권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략)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저는 1년 안에 한국이 공산화된다는 것에 돈을 걸겠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엄청난 유형의 참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에디와 함께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교전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데에 크게 괴로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은 황폐화되고 불탔으며, 그 중 일부는 낮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가 우리에게 빌려준 지프차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¹⁴⁾

라이언 신부가 다리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를 미국에 보내기 위한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네 명의 새로운 신부를 위한 입국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도슨 신부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커피나 설탕, 우유를 사지는 못했지만, 1,200달러어치 식품을 구입했습니다.¹⁵⁾

골롬반 선교회 신부들은 제주도의 4·3사태를 다가올 남북전쟁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인식했으며, 결국 2년 뒤 6·25전쟁이 발발함으로써 4·3은 한국전쟁의 축소(縮圖)가 되어버렸다. 헨리 신부의 제주도 및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은 아일랜드 골롬반선교회 본부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였다.

라이언 신부의 병환 소식을 들으니 유감입니다. 그가 하루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병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를 미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략) 우리 모두는 미군이 한국에 남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정부는 만일 미국이 한국을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산당의 온상인 것 같습니다. 도슨 신부가 붕괴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을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¹⁶⁾

3. 교회의 피해상황

4·3으로 인한 교회의 피해는 불교·개신교 등 다른 종파에 비해서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다. 1949년 2월 15일 제주분당 오스틴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가 서울 교구 조오지 캐롤(George Carroll)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는 제주도 상황을 다음과

14)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8. 5. 21).

15) 헨리 신부가 마리난 총장에게 보낸 편지(1948. 8. 1).

16) 마리난 총장이 헨리 신부에게 보낸 편지(1948. 9. 3).

같이 적었다.

만약 여기가 문명화된 나라라면, 광범위하게 ‘제주도 주민을 돕는’ 계획을 당장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은 현재 최고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에 타 무너진 가옥의 수가 1만을 넘습니다. 한 마을에서 가옥 721채가 습격자들에 의해 소실되었고 주민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의 읍과 면(산간지역에는 남아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주위에는 군인, 경찰, 청년단체가 만든 담이 쌓여져 있어 현재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인 조차도, 간격을 잘 유지한 최소 5대의 차량으로 적절하게 호송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면, 전멸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그들은 약 130명이 사망하였고 1백 명이 넘게 부상을 입었는데, 거의 모두 도로매복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총약 200정을 습격자들에게 잃었습니다. 습격자들은 또한 기관총 3정도 노획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이 총탄 7발, 즉 M-1 3발과 카빈 4발을 맞고, 소년 중 한 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발목에 M-2 총탄을 맞았지만, 지금까지 가톨릭 신자는 두 명만 사망하였습니다. 둘 다 회복되고 있으며, 수월히 어려움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녀를 찾아내기 전에 세 시간 반 동안 (구조를) 기다려야 했으므로 미국인 고문관은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여성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잘 견디도록 길러졌습니다. 그녀는 보기에 몸무게도 줄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만약 당신이 가톨릭 사상자를 위하여 한 두 개의 ‘혈장’을 차용할 수 있다면, 나는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¹⁷⁾

즉, 1948년 겨울의 군·경의 강경진압작전 실시와 무장대의 반격으로 인해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천주교 신도 2명이 한라산 무장대의 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51년 2월 말에 한라산 잔여 무장대의 습격으로 군경 가족과 더불어 신도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희생된 2~3명의 신도들 시신은 제주성당 제의실에 안치되었으며, 1951년 3·1절에 공동 추모미사가 집전되었고, 임시 제주도청 청사에서 다시 추도식이 거행되었다.¹⁸⁾

4·3 당시 제주도 천주교회는 2개의 본당과 2개의 공소 모두 읍내 중심지 또는 해안마을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대의 공격을 받거나 거꾸로 무장대와 연결되어 군·경의 지목을 받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 신부

17) 주한미사절단 참사관 에버렛 드럼라이트가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츠에게 보낸 공문서 (1949. 3. 10)에 첨부된 서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1[미국자료편 ⑤]』, 67~68쪽) ; 『뉴욕타임즈』 1949. 3. 15 ; 『독립신문』 1949. 3. 16 ; 『자유신문』 1949. 3. 16.

18) 박도원, 『노기남 대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331쪽.

들이 미국 군인들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한국 군·경의 보호를 받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본당 라이언 신부는 1948년 8월 18일 상호리에서 폭도 40명이 마을 주민 5명의 집을 습격해서 그들을 죽창으로 찔렀으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국방경비대 9연대에 통보하는 등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에 협조했다.¹⁹⁾

서귀중학원 학생이던 변창호(서흥리 거주)는 좌익 서적을 소지했다가 특무대에 연행되어 취조를 받았는데, 서귀포성당 신도회장 허승천이 신원 보증을 해줘서 석방되기도 하였다.²⁰⁾ 4·3 당시 서흥리에 있던 서귀포성당에는 호근리 등 주변 마을에서 소개된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기도 했다.²¹⁾ 호근리 주민 홍재순(여, 사망 당시 36세)은 1948년 11월 5일 토벌대에 의해 자택이 불태워지자 서귀포성당으로 피신하여 거주하다가 서귀포경찰서에 연행된 후 11월 12일 정방폭포 주변에서 총살당했다.

천주교회는 오히려 군·경에 협조하여 선무작전에 나서거나 교회의 지도급 신도들 가운데에는 직접 우익청년단체에 가입하여 한라산 토벌활동에 주역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귀포성당의 신도 강성건(아타나시오)은 1947년 3월 30일 서귀포 천주교회에서 열린 남제주군 독청(獨靑) 결성대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되어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4·3 때에는 대동청년단 활동을 하며 경찰로 특채되어 ‘폭도’ 토벌작전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²²⁾

한편 해방 후 결성된 제주읍부녀회의 회장을 맡았던 제주본당 신자 최정숙은 4·3 당시 재산 무장대를 물적으로 협조한 혐의를 받아 처형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하였다. 최정숙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48년 4·3폭동사건이 일어나자 우리가 만든 부녀회의 거취가 큰 문제였다. 우리는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부녀회를 해체하기로 결의했다. 왜냐하면 부녀동맹이라는 좌익단체가 결성되어 오해를 받을 염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해체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부녀동맹에 가담한 사람들은 우리의 부녀회 해체를 무시하고 부녀회가 곧 부녀동맹인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軍紀隊에 붙들려갔다. 부녀회의 해체일자와 소위 동맹과는 무관함을 설명했으나 독지골 박영효씨 집을 우리가 썼는데 여기에 우리

19) 주한미육군 제6보병사단 제주도 주둔 제9연대 일일보고(1948. 8. 22) (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8[미국자료편 ②]』, 68쪽).

20) 변창호(1931년생, 서귀포시 서흥동 거주)의 증언(2002. 4. 12 채록).

21) 서귀포성당은 1937년 8월 15일 서흥리에서 서귀리로 옮겼으나, 일제 말기 라이언 신부의 수형 생활로 인해 본당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 1947년 10월 라이언 신부가 다시 부임할 때 서귀포성당은 예전 서흥리 터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3 당시 서흥리에 있던 서귀포성당 신자 강순옥(루시아)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2) 『제주신보』 1947년 4월 4일자 : 『제남신문』 1947년 3월 14일자, 「내가 걸어온 길」. 강성건은 1941년 세 명의 신부들이 일제 당국에 검거된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광주형무소에서 1년 10개월 간 복역하는 등 서귀포 천주교회의 지도급 신도로서 활동했지만, 4·3 당시 그의 사회적 활동이 교회의 입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가 손보지 않은 틈에 인근 주민들이 막걸리를 담아 감추었고 내가 약품을 보관해둔 것이 크게 오해로 번졌다.

내가 폭도들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술을 대주기 위해서 독지골 집에 감춰뒀다는 것이다. 나는 공산당으로 몰려 직결처분을 당하게 되었다. 군인들에게 나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개죽음을 각오한 나는 오직 마음을 정리하고 천주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리며 기다렸다. 그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대장이 천주교 신자가 공산당에 가담할 리가 없다고 재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당시 송요찬 사령관을 만나 오해를 풀고 살아나온 기막힌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송사령관은 곧 나에게 여성계몽에 힘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고인이 된 박경훈 지사와 선무강연을 나서게 되었다. 나는 주로 부녀회와 부녀동맹은 무관하다는 설명과 반공강연회로 도 일주를 약 2주간 했다. 이 강연에서 돌아와보니 부녀회 간부들은 모두 검거되어 천막에서 고생하며 군사재판을 받아 무혐의로 풀려나왔지만 이들의 고생은 나보다 심했다. 이때에 이조말엽의 친일정치가이며 1884년 갑신정변에 사대당에 몰려 제주도에 왔다가 한일합방 후 내무대신까지 지낸 박영효씨에게 우리 집안이 몰려 받은 독지골 집 8채가 모두 불태워져 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내가 군인들에게 불들려가니까 소위 빨갱이의 소굴이라고 오해, 주민들이 불을 질러버렸다는 것. 이로 인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림 서화 가구 등 값진 물건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서러움을 당해야 했다.²³⁾

해방 직후 결성된 제주읍부녀회는 1947년 1월 25일 제주도 부녀동맹이 결성되자 곧바로 2월 21일 제주읍 부녀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최정숙은 부녀동맹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부녀회 시절의 많은 동료들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1948년 11월경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제주농업학교 수감되었다가 총살당한 경우도 있었다. 최정숙 또한 부녀동맹 가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농업학교로 수감되기 직전 제주본당 신부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려서 석방되었다는 증언도 있다.²⁴⁾

4. 교회의 선무·구호활동

1) 선무작전의 참여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의 포고문 발표, 11월 17일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제주도 전역에 강력한 초토화의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때로부터 1949년 2월에 이르기까지 1만5천 명 가까운 희생자가 속출하였다고 미군정 보고서와 제주

23) 『제남신문』 1973년 10월 4일자, 「내가 걸어온 길」.

2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1997, 224~226쪽.

교회 선교사들의 편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중산간 마을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상이 가해졌고, 제주읍내의 유지급 인사들에 대한 좌익 가담 및 협조 혐의로 체포·수감·고문·총살이 수시로 행해졌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본당 최정숙도 이 시기에 헌병대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것이다. 앞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최정숙은 헌병대에서 석방된 뒤 송요찬 연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선무활동의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과 2주 동안 제주도 일주를 하며 선무 강연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선무강연은 자신들의 좌익가담 혐의를 부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한라산 무장대와 의 관계를 끊게 하려는 토벌대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3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선무작전은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3월 10일 제주도 시찰에 나선 이범석 총리의 ‘선무공작’ 발언과 유재홍 사령관의 전황 인식에 따른 결과였다. 이를 위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선무(宣撫) 공작대’를 발족시켰다.

선무 공작대의 출범은 제2연대장 함병선이 신성여자중학원 교감인 홍완표에게 민간단체 조직을 위임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2연대에 배속되어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홍승표 선생은, 제2연대장이 선무 공작대를 책임질 담당자를 추천해 주도록 하자 홍완표 교감을 추천하였다고 한다. 홍완표 교감은 같은 학교의 교사인 이기형·고창호·김종철 등을 집으로 초대하여 선무대 일원으로 나서게끔 설득하였다.²⁵⁾ 홍완표는 선무대의 교화부장을 맡아서 선무 활동을 돕는 화극(畫劇) ‘바른길’ 등을 만들었고, 고영일은 기획차장 겸 작전 보도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기형과 김종철은 선무공작 때 사용하는 노래를 여러 편 작사·작곡하였다.²⁶⁾

선무대 활동은 신성여자중학원 교사뿐만 아니라 제주여자중학교의 교사들도 적극 참여하였고, 제주문인협회 회원들도 자진하여 가담하였으며, 여기에 민간 대원들을 호위하는 김동근 소위의 경비대가 포함됨으로써 120명의 선무 공작대가 조직되었다. 이후 대원들은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강연과 노래·연극·의료 활동 등을 통한 선무 활동으로 큰 효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 중산간 지대를 해매던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게 되었다.

2) ‘유지사건’의 중재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8월 제주도에서 이른바 ‘유지사건’이 일어났다. 1950년 8월 초순 제주 지역의 법원장, 검사장, 제주읍장 및 변호사, 사업가, 교육자 등 유지급 인사 16명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제주계엄사

25) 강용삼·이경수 편저, 『대하실록 제주백년』, 1984, 695쪽.

26) 이기형의 증언, 「일본 패망을 읽은 청년 비밀조직 백록회」, 『제주도의 4월 3일은』 3집, 제주자유수호협의회, 2011, 209~210쪽.

령부(사령관 : 신현준 대령)에 연행된 충격적인 사건을 말한다.²⁷⁾

이들 제주 지역 유지들은 8월 8일과 9일에 걸쳐 계엄사령부에 의해 갑자기 체포·구금되었다. 약 열흘 정도 정보과 소속 장교 및 하사관들에게 고문과 총살 위협을 받았는데, 8월 14일에는 피의자 장용문이 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당시 김충희 제주도지사는 이 사건이 특정인을 구속하기 위한 모함으로 보고, 이성주 경찰국장과 협의하여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조병옥 내무부장관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또 공병순 제주특무대장도 이 사건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지 조사를 위해 급파된 선우중원 치안국 정보수사과장은 이 사건이 계엄사령부 정보과장 신인철 대위의 음해·조작 사건임을 밝혀냈다.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는 전혀 실재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불순분자의 중상모략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이윤희 외 14명은 9월 3일 오후 6시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피의자 대부분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김재천 제주지방법원장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일찍 사망하였다.

제주도 유지사건으로 제주 사회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도민들은 현직 법원장·검사장이 계엄군에 검속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직접 체험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은 8월 20일 대규모 집단 학살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제주는 전율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유지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 천주교회가 숨은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서 주목된다.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이던 하두용은 ‘유지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인민군환영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유지들로는 당시 총무국장, 법원장, 검사장 원검사장, 제주읍장 김차봉, 농고 선생 최광(남)식, 변호사 최원순(최광식 아버지), 백형석, 전인홍, 도청 과장 김대홍, 이윤희(이승택 지사 아버지), 김영희 등이 거론되어 모두 검거되었다. 이들은 제주 주정공장 창고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최정숙씨가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잡혀가 죽게 되자, 성당 신부님께 사정을 했다. 최정숙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사정 얘기를 들은 신부님이 서울 중앙본부에 제주도 유지사건을 알려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완전히 개인감정으로 인한 조작임이 밝혀졌다. 어떤 개인감정인지는 모르겠다. 조작극임이 밝혀지자, 검거되었던 제주 유지들은 모두 석방되었다.²⁸⁾

최정숙의 아버지(최원순 변호사)와 오빠(최남식 제주농업학교 교장)가 체포되자 제

2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436 ~ 438쪽.

28) 하두용(1927년생, 4·3 당시 공무원, 2001. 6. 28 채록).

주본당 도슨 신부에게 구명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현지 조사 책임자인 치안국 선우 종원 수사지도과장 또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조병옥 내무장관의 특명으로 제주에 파견되었다. 선우종원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제주본당의 도슨 신부와 신성학교 교감 홍완표를 방문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군 정보과의 횡포에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자 정보과장인 신인철 대위가 이들을 무장대의 활동과 확대 연관시켰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특히 미8군 군종신부를 겸하면서 미국에 있는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 ; NCWC)의 원조를 받아 제주의 피난민 구제에 앞장섰던 라이언 신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관계 요로에 진정까지 하였다.²⁹⁾

라이언 신부가 1950년 8월 13일 주한미대사관에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재개했고 중대한 위험 국면에 처했다고 알리자, 해군 무관 세이퍼트(John P. Seifert) 중령 등 대사관 관리들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현지에 와서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 해병대 지휘관, 경찰 간부들을 면담했다고 한다.³⁰⁾ 아마 라이언 신부는 제주도 상황의 위급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유지사건의 진상을 미 대사관 측에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재민 구호활동

1948년 겨울과 1949년 초까지 집중적인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의 결과, 중산간마을 주민 상당수가 죽음을 피해 한라산 속으로 피신해 들어갔고, 마을 대부분은 불타 버려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49년 2월 15일 제주본당 오스틴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가 서울교구 조오지 캐롤(George Carroll)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만약 여기가 문명화된 나라라면, 광범위하게 “제주도 주민을 돕는” 계획을 당장 실시할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은 현재 최고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에 타 무너진 가옥의 수가 1만을 넘습니다. 한 마을에서 가옥 721채가 습격자들에 의해 소실되었고 주민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습니다.

라고 전할 정도로 당시 제주도의 상황은 너무도 비참했다. 산중에 숨어있는 주민들을 하산시켜 사태를 완전히 종결짓기 위해서는 주민 구호대책이 시급히 요구됐다. 이러한 제주의 비참한 상황을 전한 스위니 신부의 편지 내용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1949년 3월 15일자에도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29) 한용환·서상요 편저, 『복음의 증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2, 152쪽.

30) 허호준, 앞의 책, 255~256쪽.

이러한 스위니 신부의 편지 내용에 따라 서울 주재 미국 메리놀선교회의 조지 캐롤(George Carroll) 신부는 1949년 4월에 구호품을 배분하러 제주도를 방문했다. 캐롤 신부는 제주도 현지에서 만난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현재 새로운 정신이 제주도 주민들에게 퍼져있다. 올해 3월초까지 제주도에 만연했던 패배주의가 이제는 일반적인 낙관주의로 바뀌었다. 농민들이 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재건축이 눈에 띄고 있다. 또 중산간 지역의 옛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움직임도 줄어들고 있다.”고 제주도 방문 소감을 밝혔다.³¹⁾

캐롤 몬시뇰은 제주도 구호 방문을 끝낸 뒤 1949년 4월 28일자로 「제주도 방문기」를 작성하였다. 메리놀선교회 서한록(한국천주교회사 소장)에 수록된 방문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주도 방문과 관련하여 구호 활동의 책임자로, 또 잡지의 기고가로 다녀오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남쪽 끝에서 대략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공산주의자에 의해 황폐화된 섬에 두 주를 머물고 막 돌아왔습니다. (중략) 해안가를 따라 아직 남은 마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담에는 망루가 우뚝 솟아있고, 감시인들이 24시간 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들의 입구는 총은 아니지만 투창(죽창)으로 무장한 남자와 소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섬 전체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 24군데 마을에 들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져 그들에게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미국 가톨릭구제회(NCWC) 산하의 가톨릭전쟁구제회(CRS)를 통해 구호물품들을 그들에게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 최근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유례없이 바빴습니다. 지난해 그곳에서는 정규전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사망한 사람만도 1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주도에서 사목활동을 해온 스위니 신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심각한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미국대사 무초와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장교인 로버츠 장군에게 보여주었으며, 마침내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입을 옷조차 부족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일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남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는 피난민들이 살고 있는 가족우리와도 같은 헛간을 방문하였습니다.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그만 말문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눈물이 나와 저는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오두막집을 보고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여섯째 째에 폭동자에 의해 파괴된 수천 채의 집을 보았습니다.

31) 주한미대사 무초(Muccio)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항공우편(1949. 4. 2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11[미국자료편 ⑤]』, 90쪽).

섬(제주도)의 두 사제들은 아직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물품들이 가톨릭에서 온 것이라고 제가 말할까봐 두려워하여 어떤 물건도 하역하기를 거부하던 프로테스탄트 신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 물건들을 목사에게 보내어 그가 받으니 구호물품이 제주도에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지방 관리에게 구호물품의 9/10를 인도하였으며, 지방 관리는 이를 창고에 두었다가 한 달도 안 되어 모두 나누어 주었고 기부자가 누군지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이부자리 등등을 보낸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신부가 매년 짐 실은 트럭과 함께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이런 물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이 섬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통상 6·25전쟁 직후부터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캐롤 몬시놀의 제주도 방문을 통해서 4·3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49년부터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NCWC) 안의 신설 위원회인 ‘가톨릭구제위원회’(Catholic Relief Service ; CRS)³²⁾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전쟁 첫 해에만 280만 달러의 구호금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왔는데, 그중 200만 달러 이상은 ‘가톨릭구제위원회’(CRS)에서 모아 보낸 것이었다. 이 구제위원회에서는 1951년에도 많은 구호품을 보내왔다. 이후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 전재 구제부장 스완트롬 몬시놀은 1952년 9월 24일에서 30일까지 약 1주일 동안 부산·대구·서울의 전재 상황을 직접 시찰한 뒤 이에 대한 실정을 미국 각계에 호소함으로써 막대한 구호물자를 모아 한국에 보낼 수 있었다.³³⁾ 당시 복지협의회의 한국 지부장은 1949년 제주를 방문했던 캐롤 몬시놀이었고, 제주도는 부산 사무소의

32)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는 1917년 미국 천주교회가 교육사업과 사회사업, 이민사업을 전개하고자 설립한 단체로, 처음에는 ‘미국 가톨릭전쟁평의회’라 불리었다. 1919년 공식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1922년에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두는데, ‘가톨릭구제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전쟁 포로와 난민 및 빈민들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우리나라에 구제위원회가 들어온 것은 1946년이었고, 1952년에는 외원법(外援法)에 의거하여 외국 원조단체로 보사부에 등록되었다(인천교구사 편찬 위원회 편, 『인천교구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74~175쪽).

33) 『가톨릭신보』 132호, 1953년 9월 10일. 『가톨릭신보』는 『가톨릭신문』의 전신으로, 1953년 3월 7일(제122호)부터 1954년 1월 15일(137호)까지 사용된 제호임.

지원을 받았는데, 한국 지부에서는 구호 활동을 위해 기독교세계봉사회(CCWS)와 협력하기도 하였다.³⁴⁾ 캐롤 신부는 가톨릭복지협의회의 한국 지부장으로 2만 달러 가량의 음식, 의복, 그리고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을 원조하였다. 이 원조 물품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에서 온 전쟁 피난민, 어린이 기관(고아원), 1948년 극심한 홍수의 피해자, 1949년 제주도의 폭력배로 인해 집을 잃고 떠난 사람들 등에게 공급되었다.³⁵⁾

이러한 교회의 4·3 또는 6·25전쟁 이재민 구제 활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이루어졌고, 일면 신자 수의 증가에도 한몫을 하였다. 한편 제주지역 교회는 피난 성직자들의 활동으로 신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5. 맺음말

4·3 당시 제주 천주교회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총돌과 폭력, 주민 희생의 위험지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교회의 골롬반선교회 신부들은 일제 치하에서는 태평양전쟁 때 옥고를 치렀지만, 4·3 때에는 미국 군인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민심과 민정을 전달하고 국내외 정세를 판단했으며 교회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도 하였다. 골롬반회 신부들은 한결같이 제주도 사태를 남북한 전쟁의 예고 사건 또는 축도로 인식하였고, 미군의 진주와 보호 없이는 제주도와 남한이 공산화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들은 자연히 미군정 당국과 같이 4·3을 공산분자들의 폭력적인 사태로 파악했으며, 1만5천 명 주민 희생의 원인도 한라산 무장대의 습격에 의한 것으로만 인식하였다. 교회는 신도들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교회 밖의 일반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4·3의 사태 국면을 처음부터 유심히 관찰해 온 제주본당의 스위니 신부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경찰의 폭력과 테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미군정 당국이 경찰의 폭행을 중지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미국 메리놀선교회의 캐롤 몬시놀은 스위니 신부로부터 편지를 받고 직접 미국대사 무초,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중단시킴으로써 제주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회 신도들의 선무공작대 참여, 활발한 구호활동 또한 4·3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교회가 김익렬 9연대장이 나선 평화협상의 막후에서 협조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할 일이나, ‘유지사건’ 당시 수많은 제주의 지도급 인사들의

34) 『가톨릭시보』 206호, 1959년 11월 8일.

35) 메리놀선교회 보고서(1952. 9. 3).

어이없는 죽음을 막아낸 것 모두 평화적 사태 해결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었다.

앞으로 제주 천주교회 신도들의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선교사들의 서한자료 검색, 교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인터뷰 작업 등을 통해서 좀 더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며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한용환·서상요 편저, 『복음의 증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2
- 강용삼·이경수 편저, 『대하실록 제주백년』, 1984.
- 박도원, 『노기남 대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인천교구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1994.
-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미국자료편]』, 2003.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최선헌, 「서양 선교사의 한국전쟁 예견 -외방선교회 관련 문서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23, 2004
- 윤선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 최선헌, 「냉전시대 캐롤 몬시뇰의 구호 활동과 그 의의」, 『교회사연구』 34, 2010.
- 허호준, 『4·3, 미국에 묻다』, 도서출판 선인, 2021.

불교계 제주4·3 피해 연구 현황과 과제

불교계의 제주4·3 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주관하여 제주4·3 시기 불교계의 피해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3년 제주불교사연구회 주관으로 다시 한번 불교계의 제주4·3 피해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간에 이 조사를 토대로 하여 불교계 피해 원인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고는 우선 두 차례의 조사 연구의 특징과 차별성에 대해 살피고, 불교계 피해 원인을 분석한 논문을 살피고 나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 불교계 제주4·3 피해 조사 연구 현황

1. 한국전쟁피해조사 제주도편(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04)

1) 조사 담당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에서 한국전쟁기 불교문화재 피해 조사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4·3 시기 불교계 피해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04.)

제주도에서의 한국전쟁 시기 피해는 1947년부터의 제주4·3의 영향 속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대상 조사 시기를 정하였다. 제주불교사연구회가 조사를 담당하였다.

2) 조사 대상

불교계의 제주4·3로 인한 피해는 사찰 건물의 피해와 인명 피해를 위주로 조사하였다. 종교용 집기 중 불상 혹은 탕화, 경전 등의 피해는 수치로 따로 집계하지는 않고 해당 사찰의 피해 현황 속에 묘사하였다. 또한 인명 피해의 경우는 승려로 국한하였고, 신도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주4·3의 시기는 1947년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로 하고 있다. 불교계 피해는 제주4·3 시기 중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원은 조사 시점까지 복원이 된 사찰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 방법

2003년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찰 방문 조사, 불교계 원로 방문 조사, 사찰별 노인 신도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전쟁 시기 제주도에 몇 개소의 사찰이 있었는가에 대해, 정확한 전체 사찰 수를 집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당시 활동하는 제주도 사찰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백분율로 계산하지 않았다.

4) 조사 결과

피해 사찰은 총 35개로 집계하였다. 사찰 재산 피해 33개소, 인명 피해는 14개 사찰의 16명이다.

(1) 재산 피해 : 재산 피해는 사찰 건물 피해만 수치를 집계하였다. 전소 16개 사찰, 일부 소각 3개 사찰, 폐허 14개 사찰로 총 33개소이다. 전소는 사찰 내의 법당과 요사채, 객사 등 모든 건물의 소각을 뜻하는데, 관음사의 경우 9개 전각이 모두 소각되었다. 이를 1개 사찰 전소로 집계하였다. 일부 소각의 경우는 선광사의 경우 처럼 법당은 철거시키고 객사를 소각시킨 경우 일부 소각 1개로 집계하였다. 폐허로 집계한 사찰의 경우는 사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사찰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의도로 지붕과 벽체를 뜯어낸 경우, 소개로 인해 건물과 인물이 사찰을 떠나 종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폐허로 집계하였다. 피해 현상이 불 지르는 것이 주된 방법이라서 전소, 일부 소각을 중심으로 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사찰 기능 상실이라는 폐허로 모두 정리하였다고 보인다.

가해 주체는 거의 모든 사찰이 군과 경찰,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한 것이었다. 함덕리 본원사는 아들이 경찰이라서 무장대가 사찰을 공격한 유일한 경우이다.

피해시기는 초토화 작전시기인 1948년 11월경에서 1949년 2월에 걸쳐 주로 일어났다. 이 중 복원된 사찰은 16개소,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복원한 곳은 10개소이다. 피해 사찰 중 7개소는 폐사된 이후 복원되지 않았다. 관음사의 경우 제주4·3 종료 이후에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20여 년 이후인 1969년에 복원을 시작하였다.

표.1 <제주4·3 불교계 피해 현황(2004)>

	사찰명	소재	피해 내용	피해구분
1	관음사	제주시 아라동	법당, 기타 건물 7동 전소. 오이화 스님 고문 사망	전소, 사망

2	대각사	제주시 이도동	원문상 스님 사망	사망
3	백화사	제주시 아라동	법당, 요사채 파옥	폐허
4	불탑사	제주시 삼양동	법당, 요사채 파옥	폐허
5	서관음사	제주시 도평동	법당, 요사채, 객실 전소. 이세진 고제선 스님 사망	전소, 사망
6	석굴암	제주시 노형동	법당 전소	전소
7	소림사	제주시 아라동	법당, 요사채 전소	전소
8	용장사	제주시 도평동	법당, 객실 전소. 백인수 스님 사망	전소, 사망
9	원당사	제주시 삼양동	소개	폐허
10	월정사	제주시 오라동	법당, 가옥 5채 전소. 김덕수 스님 사망	전소, 사망
11	정광사	제주시 일도동	이일선 스님 사망	사망
12	법화사	서귀포시 하원동	법당, 요사채, 객실 전소	전소
13	용주사	서귀포시 호근동	법당, 요사채 파옥	폐허
14	월만암	서귀포시 하원동	법당 전소. 양흥기 스님 사망	전소, 사망
15	월라사	서귀포시 신희동	법당, 요사채 파옥	폐허
16	효촌봉 암자	서귀포시 하효동	법당 파옥	폐허
17	단산사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소개 강기규 스님 사망	폐허, 사망
18	두수사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소개	폐허
19	선광사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법당철거, 객실 소각	일부 소각
20	위봉사 토산 포교소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법당, 객실 파옥, 동불상 도난	폐허
21	고관사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강제 매각	폐허
22	고운사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법당, 요사채 2동 철거	폐허
23	광룡사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법당, 객실 2동 전소	전소
24	귀이사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법당, 요사채 2동, 불상 등 일체 전소	전소
25	극락사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법당, 요사채 전소	전소
26	금봉사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법당 반 소각, 요사채 소 각.	일부 소각, 사망

			이성봉 스님 사망	
27	금천사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법당, 객실 전소	전소
28	묘음사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법당, 객실 전소	전소
29	백양사 복촌 포교소	북제주군 조천읍 복촌리	법당, 요사채, 객실, 불상 등 일체 전소. 김유신 스님 사망	전소, 사망
30	보광사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법당, 요사채 철거. 성명 미상 스님 사망	폐허, 사망
31	본원사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법당 일부 소각	일부 소각
32	수덕암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법당, 객실, 석가모니불상 등 일체 전소	전소
33	수산사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법당, 객실 철거. 고정선 스님 사망	폐허, 사망
34	외곶절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법당, 요사채 전소. 신흥연 스님 사망	전소, 사망
35	은수사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고인봉 스님 도일(渡日)	폐허, 도피
<p><용어> *전소: 사찰 내 건물 모두 소각 *폐허: 파옥, 철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함</p> <p>출처 :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04.)</p>				

(2) 인명 피해 : 인명 피해는 승려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피해 형태로는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명 2명으로 총 16명이다. 가해자는 모두 토벌대이다. 피해 시기는 사찰 피해와 유사한 시기인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에 걸쳐 많이 나타나지만, 인명피해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여름까지 나타난다. 1950년 7월에서 9월까지는 예비검속된 인사들의 피해시기이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총살이나 수장 등으로 희생되었다.

승려들의 피해 상황을 보면, 이일선 스님은 1950년 예비검속되어 산지바다에 수장되었다. 1947년 3.1절기념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전동원부 활동,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단 등으로 활동한 승려이다. 이세진 스님은 무장대로 입산하여 활동하다, 주정공장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총살되었다. 오이화 스님은 관음사 경내에서 마차에 묶여 고문당하고 후유증으로 병사하였다. 원문상 스님은 2.7사건 연루로 총살, 사찰에 주민을 숨겨주었다고 이성봉 스님은 총살, 신흥연 스님은 죽창 살해되었다. 사찰

을 지키고 있다가 양흥기, 강기규, 김덕수 스님이 총살되기도 하였다.

2. 제주4·3 종교계 피해현황 조사(제주불교사연구회, 2023)

1) 조사 담당

2004년 연구를 담당했던 제주불교사연구회에서 담당하였다.

2) 조사 대상(이전 연구와의 차별점)

2023년의 연구는 2004년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조사 대상 사찰 선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04년의 조사는 당시 활동하고 있던 제주도 사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 여부를 조사한 반면, 2023년의 연구는 제주4·3 시기에 존재했던 제주도 사찰의 명단을 확보하고 피해여부를 조사하였다. 제주4·3 시기 활동 사찰 8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¹⁾ 2004년 이후 제주4·3시기의 제주도 사찰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덕분이다.

이로써 2004년에 파악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사찰을 조사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백분율로 피해 상황을 집계하였다. 2004년 연구에서는 피해 여부 조사에 주력하였던 것으로부터 당시 소홀했던 피해 양상을 구체화하였고, 승려 외 사찰 내 거주 종교활동 조력인의 인명 피해까지 조사에 포함시켰다.

표.2 <사찰별 피해 양상(80개 사)(2023)>

연번	사찰명	피해 양상	소재지
1	고관사	강제 매각	조천리
2	법화사	강탈(육군숙영지) 및 전소	하원리
3	대각사	인명 피해 사찰	이도리
4	정광사	인명 피해 사찰	일도리
5	본원사	일부 소각	함덕리
6	금봉사	일부 소각	하도리
7	선광사	일부 소각 및 파옥	남원리
8	극락사	전소	금덕리

1) 불교계의 제주4·3 시기 활동 사찰 명단은 한금순의 연구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경인문화사, 2010.)를 활용하였다. 또한 불교계 제주4·3 피해현황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 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2004.)을 토대로 하여 추가 조사하였다.

9	묘음사	전소	어음리
10	금천사	전소	어도리
11	산물코지 절	전소	신평리
12	서관음사	전소	도평리
13	외곶절	전소	함덕리
14	관음사	강탈(신선부대 본부) 및 전소	아라리
15	석굴암	전소	노형리
16	용장사	전소	도평리
17	용주사	전소	호근리
18	원만사	전소	하원리
19	월정사	전소	오라리
20	귀이사	전소	상귀리
21	부악사	전소	청수리
22	수덕암	전소	광령리
23	수산사	파옥	구엄리
24	월라사	파옥	신희리
25	고운사	파옥	고내리
26	백양사 표선포교당	파옥	토산리
27	보광사	파옥	고내리
28	불탑사	파옥	삼양리
29	광룡사	파옥	상대리
30	광령사	폐사	광령리
31	동관음사	폐사	평대리
32	백양사 명월성 포교지부	폐사	명월리
33	백양사 북촌포교당	폐사	북촌리
34	백양사 애월면 포교당	폐사	고내리
35	백양사 토산포교당	폐사	토산리
36	백양사 해안포교당	폐사	해안리
37	법상사	폐사	동일리
38	법주사	폐사	월정리
39	법주사 제주포교당	폐사	조천리
40	소림사	폐사	아라리
41	신희사	폐사	신희리

42	쌍계사	폐사	구엄리
43	영락사	폐사	영락리
44	월주사	폐사	금성리
45	은수사	폐사	고산리
46	백양사 하례포교당	폐사	하례리
47	조수사	폐사	조수리
48	선암사	폐사	고산리
49	남천사	폐사	미상
50	덕지사	폐사	미상
51	삼전암	폐사	미상
52	인수사	폐사	미상
53	백화사	폐허	도남리
54	신산사	폐허	신산리
55	단산사	폐허	인성리
56	월당사	폐허	삼양리
57	관통사	피해 없음	표선리
58	서극락사	피해 없음	동명리
59	월계사	피해 없음	옹포리
60	금중사	피해 없음	김녕리
61	대정사	피해 없음	하모리
62	월각사	피해 없음	서일과리
63	도림사	피해 없음	금성리
64	일출사	피해 없음	성산리
65	백련사	피해 없음	김녕리
66	법흥사	피해 없음	사계리
67	산방사	피해 없음	사계리
68	서산사	피해 없음	동일리
69	용문암	피해 없음	하도리
70	해륜사	피해 없음	용담리
71	월성사	피해 없음	고산리
72	정방사	피해 없음	서귀리
73	제석사	피해 없음	이도리
74	통천사	피해 없음	판포리

75	혜광사	피해 없음	법환리
76	보청사	피해 없음	동일리
77	백양사 평대포교당	피해 없음 추정	평대리
78	백양사 금등포교당	피해 없음 추정	금등리
79	백양사 사계포교당	피해 없음 추정	사계리
80	홍로사	조사 불가	서귀면

3) 조사 결과

제주4·3시기 활동한 80개 사찰 중 피해 사찰이 56개 사찰(70%)로 조사되었다. 23개 사찰(29%)은 피해없음 사찰이다. 1개 사찰(1%)은 폐사되었고 기록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사찰로 처리하였다. 제주4·3시기 활동 사찰의 70%가 피해사찰로 집계되었다.

(1) 재산 피해 : 전소 16개 사찰, 일부 소각 3개 사찰, 파옥 8개 사찰, 강탈 3개 사찰, 폐사 31개 사찰(전소 후 폐사 8+파옥 후 폐사 2 포함), 폐허 5개 사찰이다.

표.3 <피해 양상에 따른 사찰 수(2023)>

피해 양상	사찰수	내용
전소	16개 사	사찰 내 건물 모두 소각(법당, 요사, 객사 등)
일부 소각	3개 사	사찰 내 일부 건물 소각
파옥	8개 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철거
강탈	3개 사	강제로 시설물을 빼앗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함
폐사	31개 사	종교 활동 시설과 조직이 없어짐, 승려의 다른 사찰 활동이 조사됨 (전소 후 폐사 8+파옥 후 폐사 2 =10개 사 포함)
폐허	5개 사	소개 혹은 승려 사망 이후 폐허가 됨
피난	48개 사	사찰의 전소 등 사찰 훼손에 따른 다른 위치로의 피난 상황과 마을의 소개로 인한 상황으로 다른 마을로의 피난 상황
피해 추정	5개 사	기록으로 4·3시기 활동이 있는 사찰, 폐사되어 피해 내역 조사 못함
폐사로 조사 불가	1개 사	폐사되어 조사가 불가능했고, 기록도 부족하여 조사불가로 정함

2004년 조사와 차별되는 점은 피해 상황을 더 구체화하여 집계하였다는 점이다. 전소는 사찰 내의 건물 모두 소각, 일부 소각은 사찰 내 건물 중 일부 건물의 소각,

파옥은 사용을 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건물을 헐어낸 경우, 강탈은 사찰을 강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사는 종교 시설과 함께 조직이 없어져버렸으나 승려는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 폐허는 종교활동을 멈추었다가 후에 종교활동을 복원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관음사는 신선대 주둔소로 강탈되고 법화사는 군 숙영지와 초소 및 훈련장으로 고관사의 경우는 강제매각 당하여 면사무소로 이용되는 등의 피해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사찰의 피해로 종교인이 피난해야 했던 사찰은 53개 사(사찰피해로 피난 35개+마을 소개로 피난13+폐사로 피난추정 5개)이다. 사찰에서 종교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가 있었으나 활동을 지속한 사찰은 3개소이다.

현재까지 복원 사찰 26개 사찰, 잃어버린 사찰 28개 사찰이다. 복원현황을 보면 복구 2개 사, 재건 14개 사, 이전하여 재창건 7개 사, 폐사하고 유지를 이어 신창건 3개 사이다. 활동을 지속한 사찰은 당시 79개 사찰 중 23개 사(피해사찰 3 포함)이다. 기존 활동 사찰의 29%만 제주4·3시기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복구는 수리 등으로 다시 활동하는 경우, 재건은 전소 이후 같은 장소에 건물을 새롭게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재창건은 이전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장소를 구해 재창건하는 경우, 폐사되었으나 승려 혹은 사찰 종사자들이 유지를 이어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여 활동하는 신창건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잃어버린 사찰 28개 사는 현재까지 건물은 물론 그 뜻을 이어가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찰이다. 피해사찰의 50%가 잃어버린 사찰로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해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 49개 사찰로 토벌대에 의한 피해 47개 사, 무장대에 의한 피해 2개 사가 파악된다.

(2) 인명 피해 : 인명 피해는 승려와 사찰 종사자 및 가족으로 사찰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였다. 신도들의 피해는 집계하지 않았다. (2004년 조사에서는 승려만 집계하였다.)

인명 피해는 모두 23명으로 총살 14명, 수장 1명, 고문후유증 사망 1명, 죽창 사망 1명, 행방불명 1명, 예비검속 사망 1명, 육지부 피난 4명이 파악된다. 2023년 조사의 경우 승려의 육지부 피난으로 사찰의 종교 활동이 중지되는 경우를 인명 피해 상황으로 집계하였다. 그러나 사찰이 없어지고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승려가 발생하는 경우는 집계하지 않았다.

표.4 <불교계 제주4·3 피해 현황(2023)>

연번	사찰명	피해 시기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 양상
1	본원사	1948년 5월, 7월, 8월	-법당 일부 소각 -부인 흥기조 총격 사망
2	원만사	1948년 9월 15일	-법당 전소

			-양흥기 스님 총살, 주지 방동화 스님 피난
3	고관사	1948년 11월 4일	사찰 강제 매각, 조천면사무소로 이용
4	수산사	1948년 11월 15일	-법당, 객실, 요사채 파옥 -주지 고정선 스님 총살
5	극락사	1948년 11월 16일	법당 객실, 요사채 전소
6	광령사	1948년 11월 17일	광령리 소개 및 마을 전소, 폐사
7	동관음사	1948년 11월 19일	무장대, 평대리 탈전동 잃어버린 마을에 사찰 위치, 폐사
8	소림사	1948년 11월 19일	법당, 요사채 전소
9	용주사	1948년 11월 19일	-법당, 요사채 전소 -최혜봉 스님 육지부로 피난
10	광룡사	1948년 11월 중순	-법당, 요사채 파옥 -주지 김금륜 스님 육지 피난
11	금봉사	1948년 11월 20일	-법당 일부 소각, 요사채 전소 -주지 이성봉 스님 총살
12	신평절	1948년 11월 20일	법당 전소
13	백양사 해안포교당	1948년 11월 20일	해안리 리생이 마을 전소, 잃어버린 마을에 사찰 위치, 폐사
14	백양사 명월성포교 지부	1948년 11월 20일	명월리 소개, 마을 전소, 폐사
15	묘음사	1948년 11월 20일경	법당, 요사채 전소
16	법상사	1948년 11월 21일	동일리 소개 지역 사찰 위치, 폐사
17	부악사	1948년 11월 22일	법당, 요사채, 일주문 전소
18	금천사	1948년 11월 25일	법당, 요사채 전소
19	법화사	1948년 11월	-법당, 요사채, 객실 전소 -강탈(육군제3숙영지로 이용)
20	신산사	1948년 11월	소개로 법당과 요사채 폐허
21	불탑사	1948년 11월	법당 요사채 파옥
22	원당사	1948년 11월	소개로 폐허
23	월라사	1948년 11월 말	-법당, 요사채 파옥 -화주 변옥희와 딸 총살
24	선광사	1948년 11월 말	법당, 요사채 파옥, 객사 전소

25	조수사	1948년 12월 3일	조수리 소개, 마을 초토화, 폐사
26	보광사	1948년 12월 5일	-법당, 객실, 요사채 파옥 -성명 미상 스님 총살
27	단산사	1948년 12월 6일	-소개로 폐허 -강기규 스님 총살
28	백양사 표선포교당	1948년 12월 12일	법당, 객실 파옥
29	백양사 토산포교당	1948년 12월 12일	토산리 소개 주민수용소 옆에 사찰 위치, 폐사
30	신흥사	1948년 12월 14일	신흥리 소개 초토화, 폐사
31	월정사	1948년 12월 16일	-법당 등 전각 5동 전소 -김덕수 스님 총살
32	외골절	1948년 12월 17일	-법당, 요사채 전소 -신흥연 스님 죽창 사망
33	귀이사	1948년 12월 19일	-법당, 요사채 전소 -한병욱 스님 육지부 피난
34	고운사	1948년 12월	법당, 요사채 전소
35	쌍계사	1948년 말	구엄리 무장대 습격, 30여 채 소각, 마을 외곽 사찰 위치, 폐사
36	영락사	1948년 말	영락리 소개, 폐사
37	백화사	1949년 1월 2일	법당 요사채 폐허, 소개
38	서관음사	1949년 1월 3일	-법당, 요사채 전소 -이세진 스님 총살 -고제선 스님 행방불명
39	용장사	1949년 1월 3일	-법당, 요사채 전소 -백인수 스님 총살
40	백양사 북촌포교당	1949년 1월 17일	-사찰 전소 -김유신 스님 총살
41	관음사	1949년 2월 12일	-관음사 전투, 전각 아홉 채 전소 -강탈(신선부대 본부로 이용) -오이화 스님 고문으로 사망
42	수덕암	1949년 봄	-법당, 객실 전소 -부인 김씨 총살
43	월주사	1949년 겨울	법당 등 폐사
44	대각사	1949년	인명피해(이세진 스님, 이일선 스

		1950년	님)
45	정광사	1950년	이일선 스님 총살 수장
46	은수사	1950년	-폐사 -고기호 스님 부산 피난 후 일본으로 도피
47	석굴암	4·3시기	법당 전소
48	백양사 하례포교당	4·3시기	폐사
49	법주사	4·3시기	월정리, 서청특별중대 주둔, 마을 외곽 사찰 위치, 폐사
50	백양사 애월면포교당	4·3시기	고내리 마을 외곽 사찰 위치, 고내리 보광사 고운사 소개 피해 상황, 폐사
51	법주사 제주포교당	4·3시기	조천리 260여 명 희생자, 폐사
52	선암사	4·3시기	폐사 1951년 활동 보고 없음
53	남천사	4·3시기	폐사 1951년 활동 보고 없음
54	덕지사	4·3시기	폐사 1951년 활동 보고 없음
55	삼전암	4·3시기	폐사 1951년 활동 보고 없음
56	인수사	4·3시기	폐사 1951년 활동 보고 없음

3. 불교계 피해 원인 연구 논문(2019)

2004년 조사 결과 이후 제주불교의 제주4·3 피해가 컸던 이유를 연구한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 참여활동”²⁾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해방기 제주불교 상황을 먼저 살폈다. 해방기 제주불교는 친일불교를 청산하고 새시대의 건국정신에 맞추어 활동하겠다는 의도를 표방하여 조선불교혁신제주도

2) 한금순,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 참여활동」 『대각사상』제31집(대각사상연구원, 2019.)

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도 전체 사찰이 참여하였다. 제주도승려대회를 개최하였던 주도 인물들이 이후 제주4·3시기 제주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인물들이며 승려대회로 결성된 제주불교교무원도 제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그 기저를 우선 살폈다. 해방기 한국 불교는 신탁통치 문제 등의 한국 사회 현안에 참여하는 모습 등에서 불교계의 사회참여 활동을 살필 수 있기도 하다.

불교계에서 제주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승려일수록 희생이 큰 점의 이유를 찾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불교활동 중심 인물인 승려 이일선, 이세진, 오이화, 원문상 등의 활동을 추적하였다.

해방 이후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인물인 승려 이일선은 1947년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단 3명 중 1인으로 참여하고, 3.1투쟁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 선전동원부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이일선은 북국민학교에서 신탁통치 관련한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정광사에서 끌려나가 산지바다에 수장당하였다.

승려 이세진은 입산하여 무장대 수뇌부 활동을 하여 총살되었고, 승려 원문상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2.7사건에 관련되어 총살되었다. 미군정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하고 남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자 한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독선거 저지투쟁이 벌어졌다.

수산사는 5.10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모여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극락봉으로 피신해 갔다. 5.10선거에서는 제주도에서만 2개 선거구에서 투표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다.

3.1절 기념행사는 제주4·3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주도민전 주도로 3.1절 기념행사가 마련되었고 북국민학교에 주민 3만여 명이 모였다. 주민이 무장경찰의 총에 사망하고 제주도에서는 민관에서 총파업으로 항의의 뜻을 모았고, 미군정은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군정재판에 회부하였다. 제주불교 대표단체인 제주불교교무원은 3.1사건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 모집에 기금을 기탁한다.³⁾ 제주교무원의 주축이었던 관음사 주지 오이화는 토벌대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불교가 대표단체와 승려 개인들의 활동으로 제주 사회 현안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불교계의 활동이 제주4·3에서의 인명 피해 양상을 넘어 불교계의 피해를 더 키운 한 면이 되고 있다는 연구이다.

II. 불교계 제주4·3 피해 연구 과제

2004년의 불교계 제주4·3 피해 연구는 승려들을 희생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로

3) 「총액 26만 7,000원 도파 / 본사 기탁 조위금 마감」, 『제주신보』(1947. 6. 18.).

활용할 수 있었다. 불교계의 경우 승려가 속가와 의 인연을 남겨놓지 않는 특성이 있어 유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주4·3 희생자 추모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불교계에서는 출가하면 소속 사찰에서 스승과 제자를 두어 속가의 가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제주불교에서는 관음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매년 4월 3일이 되면 사찰 독자적으로 4·3희생자인 승려와 제주도민을 위한 위령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제주4·3 피해 추모행사의 조직, 종교계 유적의 보존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음사의 경우 9개 전각의 전소 이후 새로운 사찰을 복원해놓고 있는데, 관음사 경내에 무장대 활동 유적과 신선대 활동 유적 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4·3유적지의 지정 혹은 표지석 설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

불교계의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1) 지금까지의 제주4·3 불교계 연구는 전체제주불교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개별 사찰의 제주4·3활동 연구 및 피해 인명의 개별적 제주4·3 활동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2) 불교계의 제주4·3 유적지 지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의 유적지 지정과 관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계 유적지 지정과 관리를 위한 불교계의 협조와 제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종교계의 4·3정신 실천을 위한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 제주4·3 관련 활동 중 위령과 평화를 지향하는 활동은 종교계 본연의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역할이 종교계의 과제로 남아있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 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 (2004.)

한금순, 「4·3사건과 제주불교계의 피해 현황」 『불교평론』19((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_____,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경인문화사, 2010.)

_____,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수난」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기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과 수난> 학술세미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4·3평화재단), 2018.)

_____,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 참여활동」 『대각사상』제31집(대각사상연구원, 2019.)

4·3 사건 속의 개신교

1. 반공주의 - 미국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

1950년 2월 미국의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는 공산주의자 색출을 선동하였다. 이를 기화로 1952년 말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들을 고발하여 처벌하였는데, 문화 예술계의 창의적인 작가들이 큰 압박을 받았다. 반미주의자를 검거하고 배제하려던 당시의 흐름은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2차대전 기간에 파시스트와 연결된 세력을 조사하던 반미활동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HUAC)가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미국의 주류 사회는 사회주의를 경계하고 적대감을 형성해 왔는데, 매카시 이전에도 매카시즘은 작동하고 있었다. 미국의 개신교는 이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고, 때에 따라서 이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사역한 내한선교사들은 이러한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들은 파송 되기 전에, 선교지에서는 정치적 활동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만 했다. 기미년 만세 사건을 전후하여 독립운동에 큰 도움을 주거나, 일제 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대열에 함께 참여하였던 선교사들도 소수 있었다. 신앙과 양심을 따라 본국 혹은 선교부의 훈령을 어기며 이탈하고, 피선교지의 주민들의 편에 섰던 경우들이다. 그러나 내한선교사는 대부분 미국교회의 성향을 그대로 따랐고,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줄곧 유지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교회 지도자와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제주 교회의 형편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 글은 제주 4·3 당시 개신교의 경험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오랜 세월 제주교회는 4·3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였고, 최근 4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4·3에 대한 증언을 모으거나 그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피하여 왔다. 따라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그동안 간행된 4·3 일차 자료와 연구자들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부스러기 증언들을 모으고, 교회의 기록과 기억을 참고하며, 필자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내용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4·3 당시 신앙인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일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의

경험이나 생각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반영하려 한다.

2. 1930년 모슬포에서 일어난 충돌 - 4·3의 예고편

1930년에 모슬포의 좌익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며 폭력사태로 이어졌던 일은 이운방(愚凡 李運方 1909-2013)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堂) 파괴 사건’(1929년)에 이어서 교회를 상대로 ‘설교방해 사건’(1930년)을 벌였던 일이다. 잠시 고향에 왔던 강문석과 함께 젊은 사람들을 모아 미신을 버리자는 운동으로 신당들을 파괴하고 곳도 막으려 하였다. 반발이 없지는 않았으나,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하자 모슬포교회를 찾아갔고, 폭력 사건으로까지 전개되었다.

1930년 경 모슬포 예수교회에는 광주에서 온 최홍종 목사가 있었다. 몇몇 대정 청년들이 최 목사를 찾아가 기독교와 선교사업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싸움으로 확대되어 교회 장로가 구타당하게 된 일이 있었다. 이른바 ‘예배당 사건(설교방해 사건)’이다. … 1930년 4-5월 즈음 되지 않을까. 마침 모슬포교회에 선교사가 전도하러 올 때였는데, ‘우리 한번 가서 그 놈들한테 질문도 해보자.’고 의견이 모였어. 말하자면 방해지. 그러는 것이 소동이 되었지. 먼저 주먹질은 그쪽에서 했지만 주먹시위가 벌어지고 … 결국은 예배당 장로가 우리를 고소해서 6-7명이 제주경찰서로 불려가 25일 구류를 살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소년단 사람들이 그 예배당 장로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발길질도 더러 하고 그랬던 모양이야. … 그래서 그 장로는 다시 두 번째 고소를 하게 되니, 우리를 다시 소환하게 되었어.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결석 판결로 벌금형이 다른 사람은 20원씩 나오고 나는 50원이 나왔어. 전부 벌금을 물고 나왔는데, 나는 하루에 1원씩 해서 50일 동안 목포형무소에서 징역을 살아버렸지. 그때 갔던 사람들이 나, 오대진, 이도일, 이신호, 진해생, 이기효, 변신흠으로 기억되는구먼.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볼 때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지 않았는가 생각되지. … 또 하나 신앙의 자유문제로 공박을 당해도 변명할 도리가 없지.¹⁾

이운방이 2013년 6월 17일 별세하였을 때, 제주4·3연구소장 김창후는 추도사에서 이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그러다 소위 ‘설교 방해사건’이 벌어지지요.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방해하려다 오히려 장로에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항의데모를 했는데 이 일이 일제에 의해 폭력행위로 취급되고, 나중에 주동자는 목포형무소에 가서 50일을 구류 살다 나오게 되지요. 이때 선생님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맹목적인 싸움은 해서는 안 된다는

1) 4·3장정 6 (1993) 16-17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청년들의 세에 놀려 아무 말도 못 했지만 나중에 청년들이 약해지자 보복을 하더라면서요.²⁾

그러나 강태국(一粒 康泰國 1904-1998)은 자서전 <나의 증언 1988>에서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운방의 이야기보다 먼저 나왔지만, 별로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는 제주읍 출신으로 모슬포에서 성장하였으며, 당시 평양 송실전문 학교에서 수학중이었다.

1930년 여름이었다. ... 나는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약품을 팔기로 하고, 제주시와 한림을 거쳐 모슬포에 도착하였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주일이 되었는데, 나는 주일 낮 설교를 부탁받았다. 나는 그 때에 신학생이 아니어서 성서적인 설교보다 사상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양 송실전문학교 학생이 설교한다는 소문이 작은 마을에 널리 퍼졌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당시 뜨거운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몰려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며 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경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수십명의 사회주의 청년들이 몰려와 나를 죽지 아니하리만큼 때려놓고 간 것이었다. 나를 때리는 자들의 말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는 것은 ‘민족주의자요 유신론주의자인 이런 놈은 근본적으로 죽여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묵고 있던 집은 정동규라는 청년의 집이었다. 지금은 장로로서 아직 생존해 계신다. 그는 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의 폭행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중과부족 현상이었다. 나는 때리고 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슬프지도 아니하였고, 외롭지도 않았으며, 억울하지도 않았다. 나는 할 일을 하다가 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

그날 밤 나는 죽지 아니하리만큼 폭행을 당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나를 찾아 온 여학생이 있었다. ... ‘모처럼 우리 동네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참 안되었 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돌아갔다. 당시에 이 여학생은 모슬포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강홍주 장로의 장녀로서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유학중이었다. ... 그런데 이 여학생이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³⁾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서서핑(徐舒平 Elisabeth J. Shepping 1880-1934) 선교사는 강연에서 이를 언급하고, 그 내용을 선교보고서로 기고하였다.⁴⁾ “일본에 갔다 온 제주인들 중에 불세비키의 치명적 사상에 빠져 돌아오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교회를 포위하고 지도자들을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악명 높은 공산주의 지도자가 섬에 사는데, 일본 정부의 요시찰 대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우리

2) “한 많고 탈 많은 변방 제주 현대사의 산 증인을 기리며” 제주의 소리 2013.6.20

3) 강태국, 나의 증언, 한국성서대학교출판부 1988 (2010) 62-63

4) “제주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The Presbyterian Survey (1933/12) 745-747

주님의 깃발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술회하는 때는 60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지만, 양측의 기억은 매우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다만,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서술하며, 상대방의 형편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채로 단순하게 묘사하였다. 두 이야기를 비교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 충돌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최흥종(五放 崔興宗 1880-1967)은 모슬포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하였으며, 1931년에 제주노회가 분립하면서 첫 노회장이 되었다. 그는 평생 개방적인 사고와 활동으로 교회 안팎에서 주목을 받으며 기이한 삶을 살았다. 또한 서서평과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하였다. 제주의 풍토와 문화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떠났던 목회자인데, 위의 충돌 사건도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모슬포교회에는 1929년에 새로 임직받은 두 젊은 장로 강홍주, 허성재가 있었다. 강홍주는 고산교회와 성내교회에도 장로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강홍섭이라는 이름도 사용되었다. 그의 장녀 강인숙은 1936년에 강태국과 성내교회에서 김정복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였다.⁵⁾ 허성재는 4·3사건의 와중에서 1948년 11월 16일 무장대의 공격으로 절명하였다.⁶⁾

4·3사건에서도 교회와 무장대의 만남과 충돌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억측과 무리한 해석이 오랜 세월 전승되었다. 제주 교회는 오랜 세월 이를 드러내어 언급하기를 피하면서 잊혀지기를 기다려왔다고 보인다. 이제 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기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어 버렸다.

3. 4·3로 인한 제주 개신교의 피해

20세기 초에 세브란스에서 농홍을 치료받고 돌아오면서 신앙인이 된 김재원(1878-1946)의 기도와 선교사 파송 요청으로, 제주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로 제주를 찾은 이기풍(1867-1942)의 사역으로 제주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1948년 4·3사건 이전에 설립된 교회는 26개 교회로, 설립 연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제주성안교회 고희식 장로가 2023년 6월 필자와의 대담에서 증언하였다. 이전에는 강홍주 혹은 강홍주, 강홍섭 장로 이름이 모슬포교회, 고산교회, 성내교회에 남아 있었는데, 동일 인물로 추정하기가 어려웠다. 고산교회의 김상옥(1926-2011)은 만주에서 강태국의 가정과 함께 움직였고, 강태국이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남은 가족들을 돌보았으며, 강인숙과 의남매가 되었다.

6) 참고, 4·3은 말한다 5 (1998) 319. 허성제로 잘못 표기되었다.

연대	교회
1910 이전	성내교회(서부교회) 금성교회 조천교회 성읍교회 모슬포교회
1911-1920	중문교회 삼양교회 한림교회 고산교회 법환교회 용수교회 세화교회 외도교회 두모교회
1921-1930	추자신양교회 김녕교회 협재교회 서귀포교회 성산포교회
1931-1940	조수교회 남원교회 대정교회 안덕교회 무릉교회
1941- 4·3 이전	동부교회 서호교회

당시 신자들의 숫자는 어른과 아이들을 모두 합하여 1,500명을 넘는 정도였다. 일제 말기에 제주 전역을 군사기지화하고 도민들을 밖으로 보내는 정책으로 인하여, 목회자들도 매우 적은 상황이었다. 이도종, 강문호, 조남수 등 소수의 목사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형편이었다.

해방 이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4·3사건이 벌어졌다. 천주교는 영어권에서 파송된 선교사 사제들이 미군정과 소통을 원활하게 감당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개신교는 제주 지역을 선교사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교회의 선교지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장대의 공격으로 교회 건물이 파괴 혹은 소실된 곳이 서귀포교회, 협재교회, 삼양교회, 조수교회 4개 교회였다. 세화교회의 사택도 파괴되었다. 희생된 사람은 모두 17명으로, 당시 강문호가 작성한 희생자 명부는 그 이후에도 변동이 없이 내려온다. 신자 중 1% 정도 희생되었고, 도민 희생자와 비교하면 0.1%에 불과한 통계가 말해주듯이, 제주 개신교의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었다.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구분하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도 4명 포함되었다.

이름	직분	교회	피해상황
이도종	목사	대정, 화순	무장대에 납치되어 생매장되었다
허성재	장로	모슬포	야간에 자택에서 무장대에게 피살
부양은		김녕	야간에 자택에서 무장대에게 피살
진시규		중문	노중에 무장대에게 납치 피살
오대호		중문	자택에서 무장대에게 납치 피살

진학인		중문	노중에 무장대에게 납치 피살
임명선		서부	교회당 소각시 무장대에게 피살
오병필		서부	자택에서 무장대에게 피살
오병필 동생		서부	자택에서 무장대에게 피살
최순임		모슬포	차량 이동 중 무장대의 공격 피살
허영국		모슬포	국군의 오발로 사망
고창선		모슬포	국군의 오발로 사망
	권찰	삼양	자택에서 무장대에게 피살
	학생	삼양	자택에서 무장대에게 피살
김승은		두모	차량 이동 중 무장대의 공격 피살
지성익		대정영락	은신 중 토벌대에게 피살
지성익 동생		대정영락	은신 중 토벌대에게 피살

이도종(1892-1948) 목사는 일립동신회⁷⁾의 후원으로 여러 교회를 순방하며 목회하고 있었다. 1948년 6월 16일 고산에 있는 자택을 떠나 자전거를 타고 대정교회와 화순교회로 이동하던 중에 무장대에게 붙잡히고, 생매장되었다고 한다. 가족과 교우들이 행방을 알지 못하고 안타까웠으나, 일 년 지나서 고산에서 붙잡힌 무장대원이 옛 일을 털어놓았고, 지목한 곳에서 유해를 발굴하게 되었다. 허성재 장로는 1948년 11월 16일 야간에 자택에서 무장대의 공격으로 절명하였다. 그의 장남이 우익 청년단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도종과 허성재는 제주노회에서 순교자로 현양하고 있다.

당시 개신교는 대체로 토벌대의 보호 아래 비교적 자유롭게 집회를 허락받았고, 신앙생활도 안정되게 할 수 있었다. 이동이나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부분 처음에는 규제받곤 하였지만, 소요 사태와는 무관한 종교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때로는 토벌대에 속한 독실한 신앙인이 이들을 돕거나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긴장 속에 불안한 삶이 연속되는 시대였다. 당시 성산포 교회에서 사역했던 강형신(1903-1985) 전도사⁸⁾의 이야기도 이러한 일이 들어있

7) 一粒同信會 이름으로 재경 신앙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제주선교를 후원하였다. 강태국이 “한 알의 밀”(요한12:24)을 따라 아호를 一粒이라 정했는데,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고 추측된다.

8) 성읍리 출신으로 광주와 평양에서 수학하였으며, 서서평의 제자 중에서 스승을 가장 닮은 사역자였다.

었다.

당시 교회에 참한 처녀가 있어서, 며칠 후에 데려간다고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지. 마침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내었어. 블레셋에 투항하면서 미친 체하여 곤경을 벗어나는 지혜였지. 실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려운 일은 면하였다는 일이었어.⁹⁾

비슷하게 고산교회의 김청옥(1930-1967)도 토벌대장이 데려간다고 하였다. 집안의 남자들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절하였다. 토벌대는 여자와 남자들, 모두 네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불러갔는데, 다행히 사흘 후에 이동명령이 내려오면서 탈 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

제주의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토벌대 산하에서 이 시기를 보냈던 것은 아니다. 예외적인 일이지만, 입산자도 있었고 혹은 가족이 함께 제주도를 벗어나 피신하여 그 이후 종적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4. 제주에 배속된 신앙인 군경

토벌대로 제주에 배치된 군인과 경찰 중에 신앙인들도 다수 있었다고 보인다. 민간 마을에 살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경우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며, 많은 일을 솔선하여 감당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큰 영향을 주고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들도 있다.¹⁰⁾

무릉 지서장으로 파견된 김창준 순경은 교회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의 전도로 1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들기도 하였다. 쉽게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 판단한 주민들이 교회를 찾은 경우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무릉 지역에서 남아 있는 증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당시 입산자 가족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손가락총에 해당되는 아픈 이야기다. 교인들만 살아남고 이웃이나 친구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처형되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고, 선교에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화순에서도 김병섭 순경이 비슷한 역할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문에서도 김두혁 경사의 호의에 힘입어 교회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서귀포에서는 월남한 청년 박용범이 목회자가 없던 때에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를 지탱하였다. 경찰로 임용되어, 교회가 큰 화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서귀포교회가 무장대의 공격을 받고 건물

9) 필자와의 대화 1975년

10) 제주기독교100년사 (2016) 261-262

이 불타거나 살해되는 교우가 있었지만, 더 이상 큰 화를 입지 않은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였다.

군 장병의 경우는 경찰에 비해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신앙과 종교의 측면에서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병영을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였고, 주둔지에서 지역교회를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단지 평생을 군인으로 활약하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 신앙인의 경우는 몇 발견할 수 있지만, 4·3 당시에 현지에서의 활동을 신앙과 관련하여 남긴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세호(1925-2013)는 조선경비대사관학교(이하 육사) 제2기로 교육받고 임관하였다. 철원제일감리교회 목사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성장하였고, 광림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4·3 당시에는 제9연대 중대장으로 배속되었다. 채명신(1926-2013)은 육사 제5기로 1948년 4월 6일 임관되었고, 제9연대 소대장으로 배치되었으며, 8월에 수원으로 전속되었다. 그도 평생 개신교인으로 살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가 되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주월한국군사령관으로 공을 세우며 인지도가 높았다. 후임으로 사령관이 된 이세호는 베트남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복무하였다. 이후 육군 참모총장으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 재임하였다.¹¹⁾

한국전쟁 발발 이후 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으로 대정 셋알오름에서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새벽에 입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해병제3대대는 김윤근 소령의 지휘 아래 252명을 총살하였는데, 휘하의 병사들 중에서 제주 출신들은 배제하였다. 김윤근은 후일 5.16 쿠데타에 참여하였으며, 영락교회 장로가 되었다.¹²⁾

군에서 입신한 경우, 잦은 임지 이동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전역 이후에 안정된 환경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위의 두 장군은 특이하게 평생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거나, 목사가 될 꿈을 품은 일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¹³⁾

월남전의 성과를 보면, 연 32만명 파병에 베트남 사살은 5만명을 넘었다. 이에 비해 아군의 희생은 5,099명이었다. 이는 4·3에서 희생된 인명의 비율과도 매우 비슷

11) 딘 헤스(2917-2015)는 한국전쟁 당시 공군을 창설하는 교관으로 활약하며 한국 공군의 아버지로, 전쟁 고아들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어 전쟁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다. 2017년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뜰에 기념비가 공군과 광림교회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12) 양신하(1938)는 1948년 3월에 모슬포 유치장에서 가혹행위로 절명한 양은하와 일가이며, 양기하 등 여러 형제들이 예비검속으로 희생되었다. 그렇지만 김윤근을 찾아가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일이니,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용서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2018년 필자와의 대화

13) 베트남 전쟁에서 맹호부대 사단장으로 복무하였던 정득만(1926-1999)은 육사 8기로, 1982년에 영락교회 장로로 임직되었다. 그 아들 정성훈은 동래중앙교회 목사다.

하다. 제주4·3 그리고 베트남전쟁 모두 민간인을 무참히 공격하고 살상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이에 비하면 문상길(1926-1948)의 행보는 특이하다.¹⁴⁾ 육사 3기로 임관되어, 제9연대에 소대장으로 배속되었지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환경에서 성장한 민족주의자임이 드러난다.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¹⁵⁾에서 자라나던 중, 그 집안이 1930년 경 고향을 떠나서,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에 합류하였다.¹⁶⁾ 이러한 배경이, 제9연대장 박진경(1920-1948)을 제거하는 거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인다. 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군대가 민간인 학살을 서슴없이 진행하는 것을 보자, 이를 멈추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다.

1948년 6월 18일 새벽에 박진경이 사살되었고, 사건은 한동안 오리무중이었다. 딘군정장관은 총기 전문가를 투입하여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던 차에, 문상길을 추궁하면 전모를 알 수 있으리라는 투서에 의해 쉽게 정리되었다. 문상길 증위와 하사관 손선호, 배경용, 양회천, 이정우, 신상우, 강승규, 황주복, 김정도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정우는 입산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체포되었다.

법정 최후진술에서 문상길은 말하였다.

이 법정은 미군정의 법정이며, 미 군정장관 딘 장군의 총애를 받던 박진경 대령의 살해 범을 재판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법정이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재판장 이하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하여서는 공감을 가질 줄로 안다. 우리에게 총살형을 선고하는 데 대하여 민족적인 양심으로 대단히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대령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는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 이하 전원도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느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느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니 재판장은 장차 하느님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여 주기를 부탁한다.¹⁷⁾

정부 수립 하루 전날 1948년 8월 14일, 고등군법재판은 문상길, 신상우, 손선호, 배경용 4명에 대하여 총살형을, 양회천에게는 무기징역, 강승규에게는 5년 징역을 선고하였다. 모두 20대 초반의 기독교인이었다. 서울에서 이들을 구명하려는 여론이 일었고,

14) 아직도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주철희 박사의 자료발굴과 해석에 의존하였다.

15) 남평 문씨 집성촌

16) 김희곤의 <안동 사람들이 만주에서 펼친 항일투쟁 2011>, 김삼웅의 <암흑기의 선각 석주 이상룡 평전 2023>에는 남평 문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7) 김관후, 4·3과 인물, 2018, 259

1948년 9월 23일 수색에서 문상길, 손선호 두 사람에게만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총살형에 앞서 문상길 중위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 하에 한국민족을 학살하는 한국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문상길은 족보에 1945년 국군으로 전사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 가족들은 다시 간도의 옛 터전으로 이주하였다고 보인다. 제주에서 사귀던 최양순과 그 모친 윤장옥도 보안대에서 고초를 겪고 사망하였다.

5. 서북청년단과 개신교

4·3과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을 관련하여 이해하는 일은 많은 연구 혹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를 놓고서 오해와 억측이 진실인 양 굳어지고, 반복 인용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요원하다.

서청은 1946년 11월 말에 결성되고, 2년 동안 존속되었다. 유사한 우익 청년 조직으로 개편 혹은 흡수되면서 조직은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제주4·3의 현장에서 공포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청의 잔인함을 기억하고 증언하였다. 제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월남한 사람들을 그대로 모두 서청이라고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예전에 유럽계의 백인들을 보면, 무조건 미국사람이라고 말하던 것과 비슷한 경우다. 국적이나 혈통을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없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사람으로 통하였다.

한경직(1903-2000) 목사는 김병희와의 대담에서 서청이 모두 영락교회 청년들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 되어 조직을 했지요.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¹⁸⁾ 이를 근거삼아 해마다 봄이 되면 영락교회 혹은 제주영락교회가 제주4·3과 관련되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곤 한다. 한경직의 언사는 해방 이후 한국사의 주역임을 자처하면서 매우 과장되게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여과없이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경직의 설교에서 이에 상응하는 부분을 찾기란 쉽지 않다.¹⁹⁾ 4·3 당시 영

18) 김병희, 한경직 목사, 규장문화사 1982, 55-56. 1980년대 초반 서울에 올림픽이 유치되자, “내가 기도했더니 올림픽이 서울로, 강동구로 왔다”고 말하는 설교자와 유사한 관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서적 57쪽에는 백선엽(1920-2020) 장군을 영락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출판사의 편집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백선엽은 영락교회 예배에 자주 출석하였고, 2023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백선엽 추모음악회가 영락교회에서 3월 23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10월 19일에 열렸다.

19) 한경직의 설교 모음은 두 차례 간행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좋은

락교회 청년부를 지도했던 황은균 목사(1902-1959)의 설교에서는 훨씬 적나라한 반공주의를 볼 수 있다.²⁰⁾ 1947년 한경직의 설교 요약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사상에 중독되어 혁명이 필요치 않은 곳에 혁명 운운하며 그야말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의 현실은 정당한 입법기관과 정부만 수립되면 얼마든지 의회를 통하여 노동 계급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런 분자들이야말로 종교적 도덕적 견지에서만이 아니고 실로 인도적 견지, 민족적 견지에서 단연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²¹⁾

1947년 삼일절 행사 발포 사건 이후에 제주도지사로 부임하는 유해진이 서청 7명을 대동하였고,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단원들이 내려왔다. 제주도지부가 1947년 9월 21일 결성되었고, 4·3이 진행되는 동안 760명이 상주하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였을까? 이 질문은 매우 복합적인 시각과 해석을 품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판정은 스스로 내리기도 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붙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서청도 본인 스스로 자의식이 이를 확증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정체성을 그렇게 막연히 느끼고, 이후에 증언에서 확인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다.

홍만조(1951) 목사는 2018년 4·3의 전국화 과정에서, 자신의 괴로운 옛 경험을 늘어놓는 중에 서청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언급하였다. “30년 전에 연신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는데, 송치현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였다. 당시 나에게 불러주는 대로 전향서를 쓰면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에 위협적으로 ‘내가 4·3사건 때 제주에 가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네가 들으면 까무라칠 것이다. 그때 분이 다 풀리지 않아서 동안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님이 뒤를 봐 주어서, 이렇게 성장하였다.’ 한 시간 동안 괴롭혀서 더운 계절에 겉옷까지 땀으로 젖을 정도였는데, 결국 연신교회는 그 청빙을 철회하였다.” 동안교회는 1958년에 세워졌고, 송치현 목사가 부임한 시점은 1966년이니, 그의 말에는 과장도 더러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4·3 혹은 서청 관련 부분은 자신의 경험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고산에서 신창으로 시집간 김옥련(1920-1955)은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과 시댁의 홀대 속에 제주 땅을 벗어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서청단원 중에 말이 통하는 강씨와 함께 김해로 이주하여 두 딸을 낳아, 모두 이복남매 셋을 남겼다. 살아남은 강씨

기자재를 확보하자, 설교를 풀어 정리하고 원고로 만들 수 있었다. 한경직은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였다고 알려졌는데, 강단에서는 한 면으로 요약된 메모만을 활용하였다. 1948-49년의 설교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20) 양봉철, 제주 4·3과 서북 기독교, <4·3과 역사> 9-10 (2010) 228-230

21) 양봉철 글에서 중인, 245-246

를 1979년에 필자가 만났는데, 그는 개신교 신앙인은 아니었다.

서청 구성원이 북한에서 가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월남한 사람들이며,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추정은 일종의 신화요 전설이다. 이들 배후에 강한 반공의식으로 가득한 개신교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4·3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결정한 이승만과 조병옥, 그리고 미군정의 다수가 개신교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청을 한결같이 개신교와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청 혹은 폭력 조직은 교회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유지광은 동대문 사단으로 통하던 이정재 휘하의 행동대장으로 4.18 고대생 습격의 주역이었다. 5.16 이후 사형 언도를 받지만 마지막에 사면받아 살아남았다. 10년 지나 그는 <대명>이라는 제명으로 주먹세계의 이야기들을 활자화하였다. 시라소니라는 별명으로 해방 이후 주먹세계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이성순이, 나중에 영락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성순은 답십리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에 귀의하였고,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정보가 단절된 세계에 대한 소문이나 억측이, 근거가 충분한 것처럼 인용되고 계속 늘어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만 한다.

구성원 중에 기독교청년이 매우 적다고 해서 교회의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한결 부담은 적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의 반공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무자비한 폭력의 행사를 개신교 신앙의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근래에도 서북청년단의 부활을 주창하면서 나서는 이들이나, 극우 태극기 부대의 횡포에 대해 개신교가 책임을 져야 할 몫은 매우 크다. 또한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이를 지원하고 동일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한편으로는 평화와 용서를 말하면서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무한대로 드러내곤 한다. 가치관이나 윤리적 판단에서 동일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제주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정교하고 치밀한 역사를 재구성하여야 하는 과제가 4·3연구자 그리고 개신교 교회사 연구자들에 남아 있다. 선행 연구에서 넘겨졌던 부분을 다시 반추하고, 더 좋은 자료와 증언을 발굴하며 새롭게 4·3 역사를 수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시간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6. 떨어지는 기억, 다가오는 진실

제주4·3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 그리고 연구자들은, 가해세력을 곧 개신교라 생각하여 왔다. 불교에서는 그 사건의 본질을, 개신교가 스님과 불교도들을 학살한 사

건으로 규정한다. 이념 전선에서 개신교의 세계관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가해자가 모두 혹은 대부분 개신교 신앙인이었다는 점은 수궁하기 어렵다.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The Sense of an Ending 2011〉는 맨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다.²²⁾ 젊은 날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40여년 지난 후 미처 알지 못했던 기록을 만나면서 진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기억과 더불어 꽤 튼튼하다고 인정받는 공동체의 기록도 편의에 따라 윤색 혹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믿어지는 확신이다.”

4·3의 실체와 진실은 안개처럼, 멀리서 볼 때에는 확실한 듯하나 가까이 다가서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유명과도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체가 되지만, 인정하지 않고 무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22) 같은 제목으로 2017년에 영화가 만들어졌다.

“4·3사건 속의 개신교”에 대한 논찬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주최 측과 발제를 해주신 김인주 봉성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주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 또는 학문적 식견이 높고 4·3을 더 연구하신 분이 나왔으면 했는데, 필자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사실 20년여 전 필자는 제주 기독교계 언론담당자에게 4·3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타진한 바가 있었다. 당시 도내에서는 제주도의 아픔인 4·3의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이 통과되고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오는 등 4·3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계가 4·3을 다루게 되면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마 기독교 언론기관도 당시에 목회자와 장로들의 분분한 의견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면 이번 행사가 4·3과 관련한 기독교계의 공식적인 토론회로는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00년 4·3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23년, 그리고 4·3 피해 배·보상이 이뤄지는 시점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한 4·3 관련 세미나 행사가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본 세미나를 통해 개신교계가 제주도민의 아픔인 4·3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4·3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와 논의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교계가 4·3이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회피하고픈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오늘 김인주 목사께서 여러 실증 사례와 인터뷰를 근거로 ‘4·3사건 속의 기독교’라는 어려운 주제의 발제를 해주셨다. 기독교 목회자로서 신앙적 양심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4·3의 아픈 부분을 살피고자 노력하였다. 4·3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났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일부 4·3 자료를 근거로 관련 주제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소중한 글을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4·3과 기독교’와 관련하여 목회자의 입장과 평신도의

입장이 약간 다름을 느껴왔다. 제주 출신 목회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특히 4·3을 바라보는 것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개신교인과 육지부에서 이주하신 분들과도 차이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이 갈리고 4·3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개신교 역시 이러한 이념적 관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보다도 이데올로기 논쟁에 더 치우치고 있다. 일부 보수기독교 지도자에 의해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돌리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발제자는 서두에서 1930년 모슬포교회에서 일어난 충돌에 대해 다루고 있다. 1930년에 모슬포의 좌익 청년들에 의한 ‘설교방해 사건’이 모슬포교회에서 있었다는 내용의 이운방(愚凡 李運方 1909-2013) 증언이 있다. 강태국(一粒 강태국 1904-1998)은 자서전 <나의 증언 1988>에서 당시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평양 송실전문학교 학생이 설교한다는 소문이 있어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몰려왔었고, 성서적인 설교보다 사상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수십 명의 사회주의 청년들이 몰려와 나를 죽지 아니하리만큼 때려 놓고 갔다.”라고 증언하였다.¹⁾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01년 대정읍에서 주민과 천주교인들이 충돌 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이재수의 난(천주교는 신축 교안이라 부름)’이다. 당시 도민들에게는 서양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신교 역시 위협을 받거나 적대하는 눈초리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4·3 이후에 개신교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군경토벌대로 참여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 교회에서 봉사, 설교를 하거나 교회 건축에 도움을 받았고, 민가와 가까이 있는 경찰서에 주둔한 경찰에 근무하는 신자들이 교회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금의 봉개교회가 한때 ‘함명 교회’(토벌대 책임자 ‘함병선’과 ‘김명’의 이름 중 ‘함’과 ‘명’ 자를 합해 ‘함명리’라 함)로 불리기도 했다.²⁾ 교회 건축에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했다. 하지만 함명 교회는 토벌대가 봉개지구에서 진압 또는 승리를 기념하여 세워진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에게 복음 전파를 확장 시키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는 선무활동을 통하여 많은 주민을 살리기도 했지만, 일부 목사는 경찰에 협조하여 교인을 가려내어 구해낸다는 것이 결국 입산자 가족을 가려내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손가락 총’의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했다. 고 했다. 결국 교회의 교인은 살아남고 이웃은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제주 지역

1) ‘4·3사건 속의 개신교’ KNCC 세미나 자료 김인주 목사

2) 4·3과 역사 p212(20호, 4·3연구소) 제주4·3과 개신교 : ‘봉개지구 재건과 함명교회 설립을 중심으로’(김신약)

선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4·3 와중에 수많은 제주도민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고, 토벌대에 소속된 개신교 신자들이 도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필요가 있다. 조남수 목사처럼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어떤 이들은 시대의 불의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주민학살을 방관하거나 동조, 묵인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문상길(1926-1948)은 토벌대에 소속된 군 지휘자였지만, 개신교 신자로서 신앙적 양심에 따라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그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었지만,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룰 수 없었다. 이에 비해 박진경³⁾은 대대장으로 취임한 지 보름 동안 6,000여 명의 도민들을 잡아들이는 등 가혹한 탄압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이상 도민의 희생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박진경의 암살을 주도했다. 문상길은 이후 재판에서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라고 말한 박진경의 진압 작전을 비판했다.

문상길 중위의 행위는 보는 관점에 달리 보기도 하지만,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그의 신앙관을 보게 된다. “신앙적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이 없는 행동을 했으며 이 땅에서는 세상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 옳고 그름이 판명될 것이다. 국군은 부디 국민의 군대가 되어달라”는 최후 진술을 끝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문상길은 육사 3기로 임관되어, 제9연대에 소대장으로 배속되었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환경에서 성장한 민족주의자이기도 했다. 개신교인 문상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교계에서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상길의 이러한 행위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제주도민의 학살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서북청년단과 개신교에 대해서는 발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4·3 시기 제주에서 서북청년단⁴⁾의 행위는 너무나 많고 잔혹했다는 점이

3) 1948년 5월 6일 제주 4·3 사건 당시 김익렬의 뒤를 이어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이 되었다. 무장대와의 평화적인 해결과 선무공작을 중시하던 김익렬과 달리 박진경은 강경한 진압 작전을 펼쳐 제주도민 수천 명을 무차별 체포하였다. 그가 부임한 지 한 달 열흘 만(1948년 5월 6일 ~ 6월 18일)에 소위 '포로'만 6,000여 명에 달했다. 결국 1948년 6월 1일 대령으로 빠르게 승진한다. 하지만 6월 18일, 승진축하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는 도중 새벽 3시 15분경 부하 문상길 중위 등에 의해 총알 2발을 맞고 암살됐다. (나무위키 백과 인터넷 자료)

4) 서북청년회는 한반도 서북 출신의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된 극우 청년단체이다. 이들은 해방 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토지개혁, 친일파 응징, 종교 억압에 나서자 월남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피해의식과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 이 단체는 조국의 자주독립 쟁취, 균등사회 건설, 세계평화에의 공헌을 강령으로 했으나 실질

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에서 4·3을 체험한 도민들에 의해 생생하게 증언되고 기록되고 있다. ‘서북청년단 중에 개신교인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서북청년단이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발제자는 개신교 목회자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약간 두둔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다만 ‘서청 구성원 중에 기독 청년이 많지 않다고 해서 교회의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했다.

헝가리 테러하우스를 방문하고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과 약소 민족에 대한 학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 제주 4·3만 참혹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치에 의한 학살은 상상 이상이였다. 시신을 불도저로 밀어 올려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인근의 헝가리 유대인 교회는 철재로 만든 버드나무잎 하나 하나에 희생자 이름을 새겨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필자 또한 개신교인으로 개신교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박애를 실천하는 종교로 배웠고, 소중히 여겨 왔다. 그러나 4·3을 알면서 서청에 속한 기독교인이 4·3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인이 이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혼돈이 생겼다. 그런데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민간인 학살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살당한 유가족의 한 많은 고통과 상황,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하여 공비 소탕의 실적을 올렸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4·3이시기에 서북청년단에 속한 개신교인이 잔인한 학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기에 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합당한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한다.

한경직 목사는 생전에 “서북 청년들이 4·3의 진압에 동원되었고,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4·3 진압을 위해 무자비한 군경의 폭력 행사를 옹호하거나 지원하기도 했다. 개신교 신자로서의 제주도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구하기 보다 이데올로기적 이념에 매몰되어 인권을 유린한 부분이 많다.

존 메릴(1980)은 서북청년단의 잔혹 행위의 근원을 분단-냉전-전쟁의 갈등 심화 과정에서 이북에서의 피해로 인한 피해의식의 극단화로 바라보고 있으며, 미군정과 극우세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바라보고 있다.⁵⁾

제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되도록 ‘서청과 기독교’, ‘기독교와 4·3’이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한다. 다만 당시 4·3과 연관된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민들의 4·3의 아픔

적으로는 좌익세력 제압을 위한 우익세력의 선봉 역할을 했다. (제주 4·3 유적 1, 제주시 편, p58/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연구소)

5) 김평선의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제주 4·3사건을 중심으로)’. p5.

에 공감하고 제주도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모습에서 개신교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제주에서 천주교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주교회가 교회 본연의 임무보다 권력자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도민들을 탄압했던 결과 ‘이재수의 난’이 발발하였다. 천주교인에 대한 극도의 반발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관덕정 등지에서 천주교인 300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후 천주교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의료사업’, ‘교육사업’, ‘축산사업’ 등을 통한 선교에 힘썼다. 이를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봉사과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간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천주교는 4·3의 아픔에 동참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매월 4월이 되면 전 교회적으로 4·3 희생자 추모 미사를 드리고 있다. 특히 4·3 학살터였던 증문성당은 4·3 추모 성당으로 명명하였다. 성당 앞마당에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4·3 학살 추모의 조형물을 조성하여 찾는 이들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제주성안교회에서 제주기독교협의회에서 4·3 추모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개별교회에서는 4·3을 추모하고 아픔을 새기고 있지만, 전 교회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4·3 당시 순교한 목사와 장로 등의 개신교인이 17명으로 이분들을 추모하고 신앙적 정신을 이어받아야 겠지만,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한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서북청년단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이 4·3 추념식에 와서까지 시위하는 사건이 있었다. 4·3 추념식에서 식전 행사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4대 종교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각 종교의 방식으로 추모하고 있다. 제주기독교 대표자도 나와 기도 형식으로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같이 도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4·3 추념식 날 돌발적인 방해 행위가 일어났다. 도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열악한 제주기독교 상황을 무시한 행위로 문제가 크다고 본다.

특히 복음 광고가 있는 교회 차를 타고 수많은 유족과 도민들 앞에 교회를 욕 먹이는 행위를 하였다. ‘서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알고 보니 강원도 모교회 소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개신교도들의 이러한 행위에 반해 4·3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 4·3 유족회와 재향경우회가 2013년 ‘화해 상생’ 선언 이후 10년째 합동 참배를 해오고 있다. 두 단체는 제주 공동체의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와 인권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⁶⁾ 이처럼 두 단체가 제주 공동체의 아픔을 서로 보듬을 수 있는 치유 공동체로 나가고 있는 점은 오히려 개신교계가 본받아야 할 사례이다.

제주 복음화율이 7~10%(원주민 복음화율 3% 미만)⁷⁾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

6) 헤드라인제주 기사(2023.08.02.), ‘제주 4·3 유족회-재향경우회, ‘화해와 상생 10주년 기념 합동 참배’

고 개신교인으로 본분을 다하고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들에 의해 4·3이 치유되고 있고 유족들의 정신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발제자의 언급처럼 당시 제주 상황을 살피고 연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강문호 목사 등의 기록물이 있기도 하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수십 년 동안 4·3 연구소와 4·3 평화재단 등의 연구자료와 아카이브 자료가 있고, 증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요즘 들어 신학교 등에서 4·3을 이해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논문이 여러 편 나오고 있다. 이렇게 4·3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기에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면서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므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본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반목은 반목을 낳고 결국 서로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본다.

성경의 비유에도 있듯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도와준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 불쌍한 마음으로 이들을 치료해 주고 도와주었다. 상처 입은 환자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지. 왜 다쳤냐고 추궁하고 너는 치료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사랑의 종교인 개신교계가 먼저 제주의 아픔인 4·3을 보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 제주에 치유와 평화가 실현되고 궁극적으로 화해와 상생의 물결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기독교신문 기사(2023. 06. 23.). ‘복음의 불모지 제주와 제주선교센터 프로젝트’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784>

개신교 제주4·3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는 글

제주 43(이하 43) 75주년, 어느덧 일흔다섯 해의 동백이 움을 틔웠다. 2014년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고 지난해인 2022년부터 달력에 ‘43희생자추념일’이 의무 표기되는 등, 43을 기리고 대중의 43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43이 공식화되었으며, 진상 규명 또한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43의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과 관련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43과 관련,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동요가 발생하는 연유는 43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통합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까닭이다.

43의 기억을 잇고자 분투한 이들에 의해 43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폭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43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종교, 그 안에서도 개신교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불교계와 가톨릭계에서 43의 흔적을 되살리고자 실천하는 노력에 비해 43에 관한 개신교계의 주목할 만한 활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활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 또한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 2019년 ‘제주불교 43희생자추모사업회’를 조직, 매해 위령제를 봉헌하는 등 43 추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도 앞장서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 2018년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 심포지엄 및 포럼, 평화신앙캠프 등을 개최하였으며, 매해 4월에는 43과 관련된 메시지 및 기도문을 배포하는 등 43 추모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물론 개신교의 경우에도 43을 위령하고 이를 기억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제주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는 개신교계의 43 추모 동참을 선언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KK)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43 70주년에 이르러 기독교연합기관이 처음으로 주최한 공예배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후에도 43 주간마다 역사 청산 및 43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4.3 추모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렇듯 ‘4.3’이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을 조명하고자 하는 개신교계의 활동은 4.3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기독교의 자취를 찾고자 하는 학계의 움직임과도 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여 살필 대상은 ‘개신교 4.3 연구’로, 개신교 학계의 4.3 연구 동향 및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개신교 4.3 연구의 필요성, 4.3 연구의 현황, 4.3 연구의 과제를 각 챕터의 주제로 설정, ‘개신교 4.3 연구’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개신교 내에서 4.3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더불어 향후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역사 정의’, ‘치유’, ‘화해’, ‘진실’, ‘명예회복’, 이는 개신교계가 4.3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주요 개념이자 가치이다. 이러한 단어 속에 자리할 개신교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해답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질문이자, ‘종교와 4.3’이라는 엮음 내에 갖든 가치를 찾고자 하는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이 발표가 ‘4.3과 개신교’라는 너른 장에 이는 바람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장을 이어가고자 한다. ‘개신교가 왜 4.3을 잇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2. 개신교 4.3 연구의 필요성

2.1. 역사에 대한 개신교의 책임 정립

역사의 조류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한다. 종교인들 또한 이 혼재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보수하고 진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안에서 종교의 사회와 세속의 사회는 완전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여파가 사회와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개신교는 한국 역사 안에서 각 유기체와 함께 호흡하며 공존하고 있다.

조선에 도래하여 정착한 개신교의 성격을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박정신은 “19세기 말 역사적 격변기에 새 가치와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당시 조선 민족에게 부과된 반(反)봉건 반(反)외세의 역사적 과제를 담당하고자 했던 세력”¹⁾으로 개신교와 같은 종교 공동체를 지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주제들을 기독교 공동체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사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의 움직임을 통해 내세우고 있다.²⁾ 사회 변혁의 주체들로 제시한 개신교의 존재 방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의 개신교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 기록되는 4.3 또한 개신교의 영역이다. 그런데

1) 안정신 외 5인, 『기독교와 한국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165.

2) 앞의 책. 안정신이 내세우는 예는 ‘개혁 세력들과 기독교의 만남’, ‘민족 운동 세력들과의 활동’ 등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도 지난 시기 4.3에 대한 개신교의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논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정치-사회적인 이슈는 세속적인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이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³⁾ 이는 영혼 구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고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시도로, 기독교적 신앙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세속과 교회의 영역을 분리하여 보려는 시도 안에서 발생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이목을 끄는 입장은 사회 참여 및 증언자로 개신교가 나서야 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내 발생하는 갈등 안에서 4.3 또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에 개봉되었던 다큐멘터리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은 “1948년 건국을 전후하여 9년 동안 잔인한 학살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으며,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로동당 공산세력이 일으킨 사건, 제주도 4.3 사건은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제헌 의원을 뽑는 5월 10일 선거를 막기 위해 경찰관, 우익인사, 선거위원과 그들의 가족을 학살해 사건의 완전종결까지 9년이 걸린 비극”⁴⁾이라고 4.3을 소개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 지원 단체인 ‘대한역사문화원’은 개신교 목회자가 운영하는 단체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역사를 교육하고 탐방하는”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⁵⁾ 이들이 ‘역사를 바로 알리는 작업’은 그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4.3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과 알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진실 규명’의 요청은 4.3에 대한 개신교의 다른 정의로도 나타난다. 2008년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아 개최되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에서는 ‘제주평화선언문’이 채택, 발표된 바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첫 번째로 4.3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학살”⁶⁾로서의 4.3의 성격을 명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진상 규명과 역사적 정명 회복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0년 뒤, 4.3 70주년을 맞이하여 NCKK가 발표했던 성명과 같은 기조라고 볼 수 있다. 70주년 성명문에서는 4.3을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분단과 냉전체제 안에 장치된 구조적 폭력의 결과”⁷⁾라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회개를 촉구하였다.

3) 오영석, “기독교 신앙과 정치 책임,” 『영성포럼』 17(2012), 17.

4)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Full Version),” 유튜브 비디오, 1:15, 게시자 “대한역사문화원,” 2023.4.2., <https://www.youtube.com/watch?v=hCigHvKnkng&t=249s>.

5) “‘제주4.3사건’ 진실 추적기…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 상영,” 『NewDaily』 2022년 8월 25일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25/2022082500070.html>: ‘대한역사문화원’ 홈페이지, http://hiskeepers.or.kr/news/section.html?sec_no=104.

6) 『제주평화선언문』

7) 『‘제주 4.3 70년,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화해와 상생을 위하여’ 성명문』

이처럼 다른 입장은 개신교계의 43 입장이 양분된 것으로 비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해 3월 20일에 진행되었던 청교도목사회 토론회의 발제 주제는 “제주 43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교회사학자 배덕만은 43과 개신교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43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눈이 공존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43이 왜 교회 안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었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43을 잘 모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일은 43과 기독교의 관계가 매우 아프고 어찌면 고통스럽고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⁸⁾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는 현 개신교의 43 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짚고 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이자 성찰점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인 의견 또는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되풀이되는 논의는 개신교인들에게 43을 접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흐트려 놓는다. 또한 편향된 이념의 자리에 43을 위치시켜, 교인들로 하여금 43은 교회가 논의해야 할 공적 영역이 아닌 것으로 곡해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교회만으로 제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모두가 의(義)를 논할 수 있는 영역이자 공동체이다. “깨어진 사회 속에서 공공의 의를 세워나가는 데 협력”⁹⁾하는 것은 곧 개신교의 사명이며, 이에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깨닫기 위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 역시 개신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는 43을 분열적인 시선으로 관통하는 개신교계의 눈을 인정하고, 이를 합치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기인한다. 이 또한 43이라는 역사를 마주하는 기독교의 소명이자 책무일 수 있다.

2.2. ‘한국 개신교’의 성격 규명 및 성찰

앞서 개신교계에서 나타난 두 갈래의 43 이해는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점차 자리 매김하여 나아간 기독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기능한다. 이는 43의 문제가 봉합되고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인식되는¹⁰⁾ 현재에도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나는 개신교의 위치 및 성격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에서 기인한다.

43과 개신교의 관계를 논할 때의 주요 논점은 1948년 4월 3일 발생했던 무장봉기의 성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개신교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7사건은 전평과 남노당의 지령에 의하여 자행된 全國的 규모의 사건으로써 特別한 성과는 없었다 할지라도 파괴와 폭동의 습격으로, 또한 도민에게 공포분위기를 조

8) “제4회 청목토론회#02/#제주 43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발제 배덕만 교수/사회 정대운목사.” 유튜브 비디오, 8:11, 게시자 “청교도목사회,” 2023.3.20., <https://www.youtube.com/watch?v=4NpixaXOTLM>.

9) 김영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6(2014), 45.

10) 안신, “제주43사건과 종교 그리고 평화,” 『평화와 종교』 14(2022), 129.

성하는 데 성공한 셈이고 제주도의 경찰력의 실력을 시험해 보았다는 점에서 成功的이었다. 그런면에서 제주도 좌익계열은 自信을 얻었고 47년도 3.1절 사건을 통하여 도민의 호응도에 自信을 얻었으며 47년도 하반기에 만들어 놓은 세포조직과 경비대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文相吉이 있는 점과 ... 4.3 사건은 결코 독자적으로 계획하거나 도발한 것이 아니고 남로당 중앙본부 찬탁지령, 3.1절 지령, 2.7사건지령과 함께 중앙지령임을 알아야 한다.¹¹⁾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 남로당은 들끓는 민심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반경활동을 전개했다. 1948년 2월과 3월에는 5·10 총선거를 방해하려는 좌익계의 폭동으로 전국이 소란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더욱 격렬하였다. 제주 4·3사건은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저지하고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경찰지서 12곳을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¹²⁾

이렇듯 4.3을 남로당, 즉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는 기독교인들의 시각은 곧 이 사건이 ‘반(反)기독교 집단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일요일을 택하여 만행을 저질렀다. 1950년도 일요일이었고 ... 성서에는 붉은 龍 사탄이라고 지적했다. 사탄의 생리는 하나님의 平和와 正義 안정과는 항상 대립하기 때문에 이런날을 택하게 되는 것”¹³⁾이라는 주장 안에서 개신교는 피해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실제 이는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서 개신교가 지녔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념이 개신교의 신앙과 배치된다는 인식 및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회는 완전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음으로 그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었고 이 싸움은 신 대 악마의 투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만만한 싸움을 전개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의 교회내에의 침투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투쟁보다는 공산주의가 이미 침투되어 있는 일반사회속으로 뛰어들어가 공산주의의 나쁜 점을 설파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악마의 손에서 구원해 내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¹⁴⁾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입장을 통해 개신교가 ‘이념’ 또는 ‘사상’으로 대두되는

11) 趙南洙, 『四·三 真相』(濟州: 觀光濟州, 1988), 49-51.

12) 김호민, 『대동강의 십자가』(서울: 쿤란출판사, 2018), 179-180.

13) 趙南洙, 『四·三 真相』, 52. 한편 1948년 4월 3일은 토요일이었다.

14) 金良善, 『韓國 基督教解放 十年史』(서울: 大韓예수교長老會 總會宗教教育部, 1956), 131.

정치적인 입장이 ‘기독교’와 ‘신앙’의 대립점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제주4·3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의 정치적 특수성과 복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¹⁶⁾는 요청은 실로 개신교계의 4·3 이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신교가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정치권의 관점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¹⁷⁾ 이에 대해 김인주는 “현재 개신교 주류가 견지하는 반공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성향은 당시 빨갱이들을 사냥한다고 만행을 저지르던 토벌대의 입장을 그대로 수궁한다”라며, “이것이 문제의 핵심”¹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신교의 신앙이 발현되는 형태가 이념을 향한 신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4·3과 같은 사건 안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개신교에서 4·3에 제안하는 것은 ‘만남’과 ‘화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과 화해의 요청에 담긴 개신교의 반성은 4·3의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에 대한 물음 또한 4·3과 기독교의 관계를 찾는 물음에 함께 요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개신교 4·3 연구의 현황

3.1. 개신교-4·3 연구의 추이

허명섭은 ‘4·3과 제주기독교’라는 글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갑게도, 기독교 차원에서도 4·3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 연구가 “기초적인 수준”¹⁹⁾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지난 시기 개신교 학계가 4·3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향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3장은 개신교계에서 진행된 4·3 연구의 추이를 살피며, 향후

15) 고민희, “한국 기독교 4·3 담론의 형성과 재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120.

16) 안신, “제주4·3사건과 종교 그리고 평화,” 129.

17) 예로 4·3이 발생했을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기독교인 조병옥은 “基督敎인은 非人道와 非正義를 當面할때는 道德上으로 革命心을 가질 것”을 주장하며, 예수가 “不義한 世上을 改良하라는 武士”이며, “우리가 그를 信仰하는 本意도 不義와 不平으로 더부러 싸호아 이기라 함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신앙의 발현은 곧 공산주의에 맞서는 행동이었다. 趙炳玉, “宗敎家도 革命家가 될 수 있을까,” 「靑年」 제7권 제12호(1927. 3.), 117. 趙炳玉, “十字架의 武士,” 「靑年」 제8권 제3호(1928. 4.), 20, 21.

18) 김인주, “제주 4·3사건, 70년이나 머뭇거린 만남과 화해,” 「基督敎 思想」 714(2018), 54.

19) 허명섭 외 8인, 『해방공간과 기독교 I』 (서울: 선인, 2017), 285.

진행될 4.3 연구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이 될 것이다. 발표된 단행본, 학술 논문, 학위 논문을 집중하여 다룰 것이며, 이를 시기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4.3 연구와 관련, 주목할 만한 초기 연구는 1998년 4.3 50주년을 맞아 진행되었던 ‘제주4.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물이다. 당시 개신교 측의 김경재, 김진, 가톨릭 측의 김성례 총 3인이 4.3과 종교에 관해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김경재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신원(伸冤)을 위한 종교인의 과제’라는 주제로 말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4.3을 ‘양민 집단학살’로 보았다.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주장하면서 종교인의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정치이념적 무명(無明)의 백태(白苔)를 벗겨내는 것’, ‘형제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참회하는 것’, ‘희생자의 영혼 신원(伸冤)’ 및 민족 공동체의 화해를 이룩하는 것’이다.²⁰⁾

다음으로 김진은 ‘뜻으로 보는 4.3항쟁’이라는 주제로, ‘민중의 뜻’과 ‘하느님의 눈’으로 마주 보는 4.3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4.3항쟁’을 직면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신학적인 질문을 짚어 보며, 이에 대한 응답 또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기술하였다. 이는 ‘4.3항쟁’이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전, 4.3 당시 희생당한 이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글에서 강조하였다.²¹⁾

개신교 학계에서 4.3에 대해 다룬 학위 논문은 2008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김상기는 ‘폭력 매커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상’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4.3을 다루었다. 김상기는 폭력의 본질적, 기원적 형태를 ‘대량학살’로 보았는데, 4.3은 한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4.3을 학살의 관점에서 다루며, 이러한 사건에서 기독교 윤리학이 갖춰야 할 관점 및 방향을 고찰하였다. 정리하자면 4.3에 있어 기독교 윤리학은 ‘사후처리적 윤리’, ‘타자화의 윤리’, ‘제삼자적 윤리’, ‘이데올로기적 윤리’가 아닌, ‘도덕적 고발담론으로써의 정치윤리’, ‘해방담론으로써의 평화윤리’, ‘비판의 윤리’, ‘치유의 윤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을 김상기는 주장하였다.²²⁾

2010년에 이르러 ‘제주4.3과 서북 기독교’라는 주제로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월남민들로 구성된 극우 반공청년단체인 ‘서북청년단’이 보인 반공 활동의 동력을 ‘종교적 신앙’에서 찾으며, 이들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즉 ‘서북 기독교

20) 김경재,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신원(伸冤)을 위한 종교인의 과제,” 『제주4.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자료집 (1998. 11. 30.).

21) 김진, “뜻으로 보는 4.3 항쟁,” 『제주4.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자료집 (1998. 11. 30.).

22) 김상기, “폭력 매커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 논문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서울: 선인, 2008).

교'에 대해 다루며,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를 주축으로 한 이들의 활동이 '이국(異國)'이자 '적룡들의 세상'인 제주에서 야만적인 행태로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²³⁾

4.3을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민간인 희생을 다루며 4.3과 개신교에 대해 논의한 논문이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최태욱은 '남북분단과 6.25전쟁 시기 (1945-1953) 민간인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연구'라는 주제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총 7장 중 1장을 할애하여 4.3의 배경과 전개, 이 사건이 드러내는 비인간화 현상과 기독교인의 활동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서북청년단'의 활동 및 당시 지휘명령체계 안에 있던 개신교인 조병옥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4.3과 개신교의 관련성을 논하였다.²⁴⁾

2017년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출간된 『해방공간과 기독교 I』에도 4.3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논한 연구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명섭은 '4.3사건과 제주기독교'라는 주제로 개신교와 4.3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허명섭은 조남수의 『4.3 진상』을 주요 자료로 참고하여 4.3에 대한 인식을 전개하였다. 즉 4.3이 '좌익에 의해 촉발된 참극'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대량학살의 참극이 제주 기독교에도 미쳤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개신교가 '자유의 수호자', '화해, 평화, 봉사의 사도'로서 도민을 위해 앞장섰음을 주장하였다.²⁵⁾

2018년은 4.3 70주년으로, 개신교계에서 4.3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해였다. 이 시기 발표된 4.3 연구로는 김인주의 '제주 4.3사건, 70년이나 머뭇거린 만남과 화해'가 있다. 이 연구에서 김인주는 제주교회가 4.3을 대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70년에 이른다는 설명으로 서두를 열며, 4.3의 역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 개신교계에서 행한 다크 투어리즘, 첫 4.3 합동예배,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제주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의 여정을 되짚었다. 4.3 70주년을 기점으로 진행된 개신교계의 4.3 행보를 상세하게 담고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²⁶⁾

이듬해인 2019년, 김신약에 의해 교회사적 관점으로 4.3을 다룬 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 개신교의 제주4.3사건 인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김신약은 1946년부터 1955년, 1956년부터 2019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에 나타나는 개신교의 4.3 인식을 살폈다. 이를 통해 개신교 4.3 연구가 지닌 한계로서 '제한된 자료와 이념' 문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4.3 연구의 새로운 시도로서 '함명교회'에 주목하였다. 함명교회는 봉개리가 초도화 작전 이후 함명리로 재건되던 시기에 세워진 교

23) 양봉철, "제주4.3과 서북기독교," 「4.3과 역사」 9.10(2010), 179-257.

24) 최태욱, "남북분단과 6.25 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25) 허명섭 외 8인, 『해방공간과 기독교 I』 (서울: 선인, 2017), 283-311.

26) 김인주, "제주 4.3사건, 70년이나 머뭇거린 만남과 화해," 44-54.

회로, ‘초토화 시기와 선무 작전의 전환점’에 위치한다. 타지인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매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43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 교회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김신약은 주장하였다.²⁷⁾

2021년에도 교회사 분야에서 ‘한국 기독교 43 담론의 형성과 재형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민희는 43과 관련하여 한국 개신교가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보며, 이를 ‘공산 폭동론’, ‘서청 책임론’, ‘기독교 동참론’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담론에 나타나는 ‘투쟁’, ‘전가’, ‘용서’의 특성을 논하며, 각 담론에서 내비치는 개신교의 주체성에 내재된 대상화와 폭력성을 비판하였다.²⁸⁾

지난해인 2022년에는 ‘제주43사건과 종교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안신은 그의 연구에서 43을 ‘제주도민을 향한 폭력과 학살’이라고 언급하며, 그 주체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비호 아래 있던 서북청년단을 지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테마 중 하나가 ‘평화’인 만큼 ‘분쟁과 고통의 기억’이 ‘화해와 평화의 문화’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영화’ 장르에 나타나는 증언과 추모에 주목하였다.²⁹⁾

3.2. 개신교-43 연구의 한계

이 절에서는 앞서 정리한 연구의 추이를 토대로 기존 개신교 43 연구의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성과에 앞서 한계를 논하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매수로 개신교에서 진행된 43 연구를 대부분 언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개신교의 43 연구가 미진했음을 일컫는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개신교 43 연구가 진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43이 개신교계의 주목을 끄는 시기는 50주년, 70주년과 같은 주기 혹은 43을 중심으로 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개신교 43 연구의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매해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위의 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 학자의 평가대로 개신교의 43 연구가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면, 먼저 그 이유로 연구 주제의 획일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43과 개신교의 관계성을 논하는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27) 김신약, “한국 개신교의 제주43사건 인식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한편 이 논문의 III장을 정리한 학술 논문이 “제주 43과 개신교”라는 주제로 2020년에 발표된 바 있다. 김신약, “제주43과 개신교: 봉개지구 재건과 함명교회 설립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20(2020), 191-234.

28) 고민희, “한국 기독교 43 담론의 형성과 재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29) 안신, “제주43사건과 종교 그리고 평화,” 123-142.

‘4·3의 원인과 개신교’, ‘개신교의 역할’을 논하는 논문에 천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에는 ‘서북청년단’을 통해 개신교와 4·3의 죄책을 논하는 부분이 상당수인데, 이에서 오는 한계 또한 실재한다는 점을 오히려 그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평정과 관련하여 중앙과 현지에서 활약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바로 이 점이 이 글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4·3과 관련된 한경직 목사 및 서북기독교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려주는 자료나 증언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³⁰⁾

4·3과 서북기독교의 관계성을 통해 개신교의 사과를 촉구하는 위의 논문에서는, 실제 4·3과 관련하여 활약한 개신교인 서북청년단의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이 연구의 한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경직은 서북청년회가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과 이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통해 이 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영락교회 누가 파견되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었던지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영락교회 출신 서북청년회 중 일부가 4·3사건 발생 직후 제주도에 토벌대로 참전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³¹⁾

위의 연구에서는 한경직이 직접 언급하였다는 4·3과 서북의 연관성과 관련³²⁾,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앞서 제시했던 연구의 한계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4·3과 개신교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전되는 데 주요한 한계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개신교 학계 내에서도 4·3의 영역을 다루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개신교 4·3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앞서 발표된 4개의 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세 편의 논문이 교회사, 한 편의 연구가 기독교 윤리학의 범위에서 다루진 글이다. 4·3을 역사와 윤리의 차원에서만 다루는 현상은 학술 논문 및 기타 연구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이러한 영역의 편중은 4·3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30) 양봉철, “제주4·3과 서북기독교,” 「4·3과 역사」 9.10(2010), 179-257.

31) 최태욱, “남북분단과 6.25 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 연구,” 229.

32) 이는 김병희가 한경직 목사와 나눈 대담을 기록하였다는 책에 기술된 내용이다. “그 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습지요.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지요.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 金昞熙, 『韓景職 목사』 (서울: 奎章文化社, 1982), 55-56.

해석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43과 조우하려는 개신교의 실천에 있어서도 제한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편중은 43 연구들이 발표되는 영역에서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개신교 43 연구로 볼 수 없기에 위의 절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43을 ‘좌익의 폭동’으로 보는 시각의 글들은 대부분 일반이 접할 수 있는 대중서로 출간되었다. 예를 들어 현대사포럼 대표인 이선교는 『43사건의 진상』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일부 개신교인들이 지닌 43에 대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제주43사건은 무장봉기가 아니라 무장폭동”³³⁾이라 주장하며 43진상조사보고서(2003)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이 글의 대상은 43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던 이들 및 정부로도 이어진다.

이 글이 향하는 대상은 일반 대중이며, 그렇기에 이 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동시에 파장 또한 크다. “기독교계는 일관되게 제주43 폄하를 일삼아 왔다 …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선교 목사(현대사포럼대표)와 전광훈 목사(청교도 영성 훈련원장)를 비롯한 목사들”³⁴⁾이라는 평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들의 언급은 개신교계의 대표성을 띠고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 및 대상, 대중들을 향한 접근이 앞서 언급한 개신교 연구의 영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예는 지난 43 연구에서 주요 자료로 인용되어 온 목사 조남수의 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3 사건은 결코 독자적으로 계획하거나 도발한 것이 아니고 남로당 중앙본부 찬탁지령, 3.1절 지령, 2.7사건지령과 함께 중앙지령임을 알아야 한다.”³⁵⁾고 주장한 조남수의 글 또한 43에 대한 개신교의 대표적인 시각으로 언급되고 있다.³⁶⁾

개신교에서 논의되는 43의 주제와 분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현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개신교의 43 연구가 미진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개신교가 편중된 시각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인식은 개신교 43 연구의 오늘에 대한 진단이며, 미래에 대한 시사이기도 하다. 이에

33) 이선교, 『43사건의 진상』(서울: 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12), 160.

34) 김응교, 『결어로: 문학의 공간』(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382.

35) 趙南洙, 『四·三 真相』, 51.

36) 앞서 다뤘던 허명섭 또한 자신의 글은 조남수의 글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개신교의 자생적 뿌리를 짚고자 시도한 전택부 또한 『토박이 신앙산맥』에서 목사 조남수의 수기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제주 선교의 챕터를 다루고 있다. 허명섭 외 8인, 『해방공간과 기독교 I』, 285;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2』(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190-202. 조남수는 이외에도 『진상』, 『조남수목사 회고록』 등을 통해 43에 대한 자신의 경험 및 의견을 개진한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趙南洙, 『四·三 真相』(濟州: 觀光濟州, 1989); 趙南洙, 『真相』(서울: 선경도서출판사, 1990), 93; 趙南洙, 『趙南洙牧師 回顧錄』(서울: 善瓊圖書出版社, 1987).

다음 장에서는 개신교 4·3 연구의 과제를 짚어 보며, 향후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4. 개신교 4·3 연구의 과제

4.1. 4·3-개신교의 위치 재정립

개신교는 4·3에 있어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4·3 초기 개신교는 ‘피해자’의 자리에 개신교를 위치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주 개신교 통사의 서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4월 3일을 전후해서 찾아온 그 혹독한 시련과 혼란 속에서 제주교회는 오히려 최고의 성장과 부흥을 이룩했다. 제주교회는 시련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감사한 것은 4·3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입은 피해와 비견할 때 별로 큰 피해는 아니었다. 제주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상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가능한 우익단체에 직접 참여하며 좌익과 투쟁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을 조심했다. 때문에 좌익들이 경계하고 기회를 노린 것은 사실이지만 혹독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³⁷⁾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피해를 입은 개신교’라는 입장은 제주노회에서 발간한 『제주기독교100년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제주도 기독교권은 4·3사건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크게 손해를 당하였다. 우선 좌익계 산사람들은 기독교권이 정치권에 가까워 자신들에게 불리한 존재로 보았다. 그리하여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³⁸⁾라는 노회의 서술은 교회를 향한 공산주의자들의 가해의 측면을 비추며, 피해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 개신교는 4·3 현장에서 비극의 상황을 겪은 피해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정서는 근현대사의 굴곡을 경험하며 발생한 “한국 기독교를 관통하는 피해자 정서”³⁹⁾와 맞물려, 그 권리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써 읽힐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 없이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개신교를 가해자의 자리에 앉히고 있다. 목사 한경직을 위시로 한 ‘학살을 자행한 개신교’라는 주장은⁴⁰⁾ 개신교의 참회를 논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제주 개신교와 서북 개신교, 크게는 한국 개신교의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또한 제주 개신교가 입

37)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494-495.

38)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1908~2008)』 (서울: 쿤란출판사, 2009), 230.

39) 北森嘉藏/이원재 譯,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73.

40) 양봉철, “제주4·3과 서북기독교,” 256-257.

은 피해를 논하는 데 있어 가해 주체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로서의 개신교, 이에 더하여 43 70주년을 기점으로 개신교는 폭력성을 내재한 ‘심판자’, ‘방관자’, ‘외면자’⁴¹⁾라는 자리에 서서 43에 대한 참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43을 위하여 선행하여야 할 것은 43의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항상 소외되고 폄박받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서 내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문구나 행보, 영적 고통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서 가장 폄박받고, 자기를 어떤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43이)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⁴²⁾

43 청년 유족의 위와 같은 발언은 개신교의 위치 및 역할과 관련하여 근원적인 통찰을 제시한다. 43에 있어 기존의 연구와 행보가 드러내는 가치체계와 신념이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 성찰하도록 한다. 기독교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외면자와 방관자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호 대립적인 위치에서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간의 유사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⁴³⁾ 그렇다면 개신교는 43의 진실을 구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종교 집단으로 인식될 가능성 또한 있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4.2. 43-개신교 연구 지평의 확대

3장에서 개신교 43 연구의 주제, 분야, 이를 논의하는 현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 바 있다. 타 학계에서 진행된 43 논의에 비해 개신교 43 연구가 뒤쳐져 있다는 한계 인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제주에서 43의 여파는 특정한 영역이 아닌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43의 상흔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적

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제주 43 성명서」: 「제주4·3 70년,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팸플릿」: 「2020년 제주4·3 기념 주일 자료집」, 17.

42) 양소희, 2023, “43에 있어 종교의 역할,” 고민희에 의한 인터뷰, 서울, 2023년 9월 3일, 오디오, 0:11.

43) 버트런드 러셀/송은경 譯,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서울: 사회평론, 2005), 291.

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고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도 집단적 무의식의 실체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⁴⁴⁾이라는 평가는 4·3 연구가 정치와 경제, 교육, 문학, 여성 등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여 개진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 내 역사, 윤리뿐만 아니라 선교, 종교철학, 기독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4·3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4·3의 가치와 메시지의 전달이 기독교 윤리와 교회 역사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 없는 만큼, 4·3에 있어서 다각도의 신학적 고찰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신교 4·3 연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장되어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는 장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및 NCKK 주관의 예배와 기도회 외에, 4·3을 향한 개신교계의 논의 및 추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4·3에 대한 개신교의 외면이라기보다, ‘모른다’라고 보는 시각이 적합할 만큼의 관심도이다.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은 70주년에 이르러 ‘이념 갈등의 극복 사례’이자 ‘4·3 전국화의 체감’이라는 평가로 그 성과를 증명하였다.⁴⁵⁾ 이를 위해 제주의 예술과 언론, 정치와 교육계 등은 4·3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자리에 4·3 학계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개신교가 4·3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의 경우,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철학적 용어를 교회의 용어로 재생산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이 ‘개신교와 4·3’의 현실이다.

개신교 4·3 연구의 지평, 무대가 넓어져야 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우선 논의를 가로막는 제한이 열려져야 한다. 모든 교단에서 담의할 수 있는 4·3을 정리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 또한 개신교 신학의 영역이다. 4·3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마당이 어디인지 살피고, 그 장에서 이뤄지는 실천적인 토론에 대한 근거를 신학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3을 판단하는 눈을 가르치기 이전에, 4·3에 대해 손들고 발언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토론의 자리를 교회에, 사회에, 온/오프라인 장에 마련하는 것 또한 4·3과 개신교를 연구하는 자들이 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 및 일반에 적지 않은 논쟁을 발생시키는 목회자들의 방식 또한 생각해 볼 지점은 있다. 이들이 포섭하고자 하는 대상은 한정되지 않으며, 그들의 주장이 펼쳐지는 공간 또한 제한되지 않다. 4·3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홈페이지 개설, 대중서 발간, 다큐멘터리 등 영상 매체와 카드뉴스의 제작 시도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이들까지 주목시키고 있다. 이들이 개신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개신교의 대표성을 띠는 집단으로 여겨지는

44) 김항원,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23.

45)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서울: 선인, 2015), 535; 김용철, “4·3 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122(2018), 119.

현실은 곧 43 연구의 영역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으로까지 다가가야 할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래 기독교 메시지에 주목하며 그를 통한 소통 가능성과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⁴⁶⁾는 한 신학자의 성찰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43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한계로 인해 결핍을 느끼지 않은 기독교 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결핍이 43에 대한 연구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 또한 절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 보 나아갈 때, 그것은 복음을 던지고 43을 향해 다가서는 걸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43에서 기독교 신학의 자리를 점유하려는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43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화, 관계, 그 공간과 간극까지 둘러보고 듣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43으로 하여금 개신교의 ‘종교’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⁴⁷⁾ 대화의 진전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43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다루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43 연구의 동향을 짚어 보았다. 개신교 43 연구 성과는 헤아리기 용이할 정도로 적다. 그럼에도 근래의 연구들을 통해 43을 주제로 한 개신교계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개신교 43 연구가 앞으로도 연속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75주년에 이르러 개최된 오늘의 심포지엄 또한 그 뜻을 표명하는 자리이라 여겨진다.

이는 개신교 43 연구의 위치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연구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한계이나, 같은 사실을 이유로 43 연구가 지닌 과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연구 주제의 획일성, 논의 분야의 협소성, 활동 영역의 제한성은 개신교 43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연구 성과의 수적 증가가 필수적이거나 이를 위한 발판, 즉 개신교 43 연구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넓히는 작업 또한 중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개신교가 왜 43을 잇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서론에서 제기한 이 질문은 다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 43을 줄기로 하는 역사에서 개신교는 어디에 있었는가. 43의 죽음을 발생시켰던 토양에도, 자라던 줄기에도 개신교는 있었다. 발화하는 시간에도 역시 개신교는 존재할 것이다. 1948년을 근간으로 제주에 불었던 광풍에 개신교는 있었지만, 바람을 피해 산자락으로 숨던 이들 중에도 개신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

46) 방연상, 『타자와 책임』 (서울: 한들출판사, 2013), 219.

47) 앞의 책, 221 참조.

리는 안다. 이러한 앎을 전제로 43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물음을 통해 43의 본질을 찾는 것, 더불어 43을 통해 개신교의 자아를 되짚는 작업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43의 연구는 진전될 수 있을 것인가.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기대하는 바는 43연구의 '진척'이다. 왜 43을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 설정은 현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43을 둘러싼 개신교의 논의에 있어 이념과 신념,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대칭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43은 이념으로 인한 정쟁, 신념으로 인한 투쟁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43 당시 발생한 3만의 죽음, 3만의 이야기 안에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43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뇌의 상흔이 개신교 연구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반성이기도 하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발언하는 주제는 규명된 역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논의되는 이야기 또한 종교로서의 공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과실보다는 공로로 점철된 자랑스러운 역사 안에서 잊힌 43은 현재 다가서기 어려운 타인으로 곁에 있다. 다행한 것은 75년의 지난한 세월에도 43의 목소리를 내고자 헌신한 각계의 노력으로 43의 형체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드러난 43은 모두가 공존하는 공간에 부유하는 권력, 이념, 구조의 불합리성과 폭력에 대한 폭로이다. 이를 통감할 수 있는 자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심판자와 방관자, 참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자도 아니라는 점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백비가 놓여 있다. 비문을 새기지 않은 비어있는 비석이다. 정명을 찾지 못한 43의 현실을 형상화한 이 비석은 43의 상징이자 아픔이다. 없이 누인 이 백비는 43의 수많은 죽음을 묻고, 비정한 종교 앞에 다시금 침묵으로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개신교 43 연구의 과업일 것이다. 향후 개신교의 43 연구를 보는 이들에게, 그 대답이 붉고 푸름이 아닌 푸르고도 붉은 고통의 색으로 읽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靑年」.
- 北森嘉藏/이원재 譯.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서울: 선인, 2008.
- 김응교. 『결으로: 문학의 공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김향원.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김호민. 『대동강의 십자가』. 서울: 쿼란출판사, 2018.
- 金良善. 『韓國 基督教解放 十年史』. 서울: 大韓예수교長老會 總會宗教教育部, 1956.
- 金昞熙. 『韓景職 목사』. 서울: 奎章文化社, 1982.
- 러셀, 버트런드/송은경 譯.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서울: 사회평론, 2005.
-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 방연상. 『타자와 책임』. 서울: 한들출판사, 2013.
- 안정신 외 5인. 『기독교와 한국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 이선교. 『4·3사건의 진상』. 서울: 도서출판 현대사포럼, 2012.
-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서울: 선인, 2015.
-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2』.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1908~2008)』. 서울: 쿼란출판사, 2009.
- 趙南洙. 『四·三 真相』. 濟州: 觀光濟州, 1989.
- _____. 『真相』. 서울: 선경도서출판사, 1990.
- _____. 『趙南洙牧師 回顧錄』. 서울: 善瓊圖書出版社, 1987.
- 허명섭 외 8인. 『해방공간과 기독교 I』. 서울: 선인, 2017.
- 김경재.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신원(伸冤)을 위한 종교인의 과제.” 「제주4·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 자료집」 (1998. 11. 30.).
- 김 진. “뜻으로 보는 4·3 항쟁.” 제주4·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 자료집(1998. 11. 30.).
- 김신약. “제주4·3과 개신교: 봉개지구 재건과 함명교회 설립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20(2020): 191-234.
- 김영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6(2014): 11-49.
- 김용철. “4·3 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122(2018): 102-122.
- 김인주. “제주 4·3사건, 70년이나 머뭇거린 만남과 화해.” 「基督教 思想」 714(2018): 44-54.
- 안 신. “제주4·3사건과 종교 그리고 평화,” 「평화와 종교」 14(2022): 123-142.

- 양봉철. “제주4·3과 서북기독교.” 「4·3과 역사」 9·10(2010): 179-257.
- 오영석. “기독교 신앙과 정치 책임.” 「영성포럼」 17(2012): 17-27.
- 고민희. “한국 기독교 4·3 담론의 형성과 재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 김상기. “폭력 매커니즘과 기독교 담론윤리 구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신약. “한국 개신교의 제주4·3사건 인식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 최태욱. “남북분단과 6.25 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 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제주평화선언문」.
- 「2020년 제주4·3 기념 주일 자료집」.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제주 4·3 성명서」.
- 「제주4·3 70년,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팸플렛」.
- “‘제주4·3사건’ 진실 추적기…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 상영.” 「NewDaily」 2022년 8월 25일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25/2022082500070.html>.
- 「대한역사문화원 홈페이지」.
http://hiskeepers.or.kr/news/section.html?sec_no=104.
-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Full Version).” 유튜브 비디오, 1:20:08. 게시자 “대한역사문화원,” 2023.4.2.
<https://www.youtube.com/watch?v=hCigHvKnkng&t=249s>.
- “제4회청목토론회#02/#제주4·3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발제 배덕만 교수/사회 정대운목사.” 유튜브 비디오, 2:32:57. 게시자 “청교도목사회,” 2023.3.20. <https://www.youtube.com/watch?v=4NpixaX0TLM>.
- 양소희. 2023. “4·3에 있어 종교의 역할.” 고민희에 의한 인터뷰. 서울. 2023년 9월 3일. 오디오, 2:33.

“개신교 제주 4·3연구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사회운동사 정리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개신교 제주4·3 연구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5차 학술장을 열었다. 이 학술장의 의미라면 2018년 NCCK 정의평화위원회·인권위원회 주관 하에 “제주 4·3사건 70년, 역사 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에서 4·3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한국교회를 대신한 사죄’와 함께 ‘4·3 기억의 다짐’의 연장에서 본격적인 학술 논의로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¹⁾ 타 종교와 달리 ‘제주4·3사건(이하 ‘제주4·3’)’과 깊이 연루된 개신교계 연구현황과 역사 인식을 정리한 고민희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제주 출신의 여성,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사회적으로는 개신교 사회운동사 연구에 몸 담아온 역사전공자로서 깊은 반성과 고민의 시간이 되었다. 이 글은 발표문에 질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박사님이 제기하신 ‘제주 4·3과 기독교’ 학술연구의 필요성, 과제 제시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에서 한 두 가지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논찬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오늘(2023. 9.27.) 기준으로 학술 검색엔진에서 ‘제주4·3사건’을 키워드 검색하면 단행본 1,691건, 학위논문 378건, 학술논문 412건이 나온다.²⁾ 같은 검색기로 ‘제주4·3+기독교’로 검색할 경우 고 박사님의 발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확인된다.³⁾ 검색키워드로 계량화하여 연구 분포와 경향을 비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자가 생각하기에- 통상 연구 주제화 과정은 기존 역사의식 전승의 측면, 당대 문제의식의 선택적·집합적 선택, 그리고 학문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 욕구 등이 작용한다. 이러한 주제화 과정을 통해 과거의 기억과 경험,

1) 2018년 4월 3일 NCCK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기도회와 공동선언 내용은 <http://pckworld.com/article.php?aid=7656354854> 참조하였다(2023.9.24.검색)

2) 이 검색어는 토론자 자의적 기준이며, ‘4,3사건’, ‘제주4·3’ 등 검색폭을 넓힐 경우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결과는 ‘6월항쟁’ 검색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며 같은 시기 ‘여순사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3) 학위논문의 경우 4편(3+1) 정도이며, 학술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글은 5편 안팎이다. 단행본도 제주기독교회사, 해방과 기독교 등 통사료 3권 정도 분류된다.

사건의 ‘역사화’가 진행된다. 일반 학계에서 결코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된 주제임에 반하여, 깊이 연루된 개신교계의 경우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하기엔 적어도 너무 적다. 기왕의 연구도 교회사, 종교윤리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된 느낌이 강하다. ‘제주 4·3’과 개신교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비춰볼 때 학술연구의 빈약은 어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지독한 외면 욕구’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⁴⁾ 박사님은 학위논문에서 ‘기독교와 4·3’의 관계를 ‘타자를 통한 주체의 회심’을 기대,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관련하여 개신교계 연구가 빈약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박사님의 연구 동기(배경)과 함께 듣고 싶다.

2. 발표에서 제주4·3과 개신교계 관계 정립으로 ‘역사정의’, 치유, 화해, 진실, 명예회복 등의 개념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NCCK는 4·3피해자와 가족들 앞에 ‘한국교회 대신한 사죄’를 한 바 있다. 교계 대표 연합기관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의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2008년 9월 24일, 장로교 4개 교단(기장, 통합, 합동, 합신)은 ‘제주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제93회 총회 결산으로 ‘제주 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나 ‘4·3’ 관련 성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⁵⁾ 앞서 NCCK의 70주년 공동선언문은 ‘제주 4·3’을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분단과 냉전체제 안에 장치된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정의하고 70년의 시간을 ‘냉전과 분단의 강요된 침묵의 시간’으로 성찰한 바 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기 「예장뉴스」는 ‘제주4·3과 한경직 목사’를 다루면서, “서북청년단(서청)에 대하여 너무 감정적이지 않기를” 바랬고, “그들은 모두 한 시대의 시대적 한계 상황들을 살아낸 피해자들”로 적시한 바 있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교계와 학계가 결합해 ‘이승만 건국론’을 통한 승리자의 역사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교계, 그리고 보수신학 학계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 해방공간에서 제1공화국에 이르는 이승만의 행적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다면, 자

4) 김신약은 ‘제주4·3’과 개신교계의 연구 부진 이유에 대해 관심 자체의 미미, 특정 이념의 편향, 제한된 자료의 활용, 새로운 연구방법의 시도 제약 등으로 분석하고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축적된 방대한 1차 자료들의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신약, 『한국 개신교의 제주4·3사건 인식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4쪽.

5) 선언문은 “..제주 기독교는 일제의 강점과 악랄한 수탈, 이념대립과 민족상잔의 전쟁 같은 역사의 격랑 속에서 너무나 많은 험악하고 힘겨운 시대적 고난들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아래 자랑스럽게도 곳곳이 이겨내면서 고귀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힘 있게 전파하였다..”라고 하여 ‘4·3사건’을 ‘이념대립과 민족상잔의 전쟁’ 안에 묻었다.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60\(2023.9.24.\)](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60(2023.9.24.))

국민을 대상으로 학살과 폭력으로 ‘비국민화’해 간 역사 실체에는 왜 침묵하는가. 앞서 ‘제주 4·3’과 개신교계 관계정립에서 치유, 화해, 진실, 명예회복의 기치들은 ‘역사정의’가 세워진 이후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올해 광주에서는 특전사동지회의 묘역참배 이후 가해/피해의 화해와 용서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제주 4·3’의 경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역사정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듣고 싶다.

3. 마지막으로 ‘제주 4·3’과 개신교 연구 확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언을 드리고 싶다. 연구 다양성은 비단 교회사, 신학, 기독교윤리 등 종교 베이스 학문영역에 제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반 학계(역사, 정치, 사회, 인류학 등)로 확장하여 ‘제주4·3과 개신교성’ 탐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1) 역사학의 경우 ‘제주4·3’은 해방 3년사(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로, 이 시기 연구는 넘쳐흐를 만큼 축적되어 있고 자료 또한 방대하다. 2) 특히 최근 역사학계는 ‘냉전사 연구방법’으로 한국현대사 전반을 재조명하는 경향이 우세한데, ‘제주4·3과 개신교’는 세계 냉전 형성과 한반도 반공전선 구축의 단초이자 첨병이란 점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다. 3) 냉전사 시각에서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정부 UN승인 외교와 ‘4·3관계’도 당시 외교문서 등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20세기 냉전기를 양극체제 중심으로 탐구할 경우 그토록 빈번했던 제3세계 저개발국들에서의 정치테러, 대량학살, 국가폭력의 진실을 다루거나 마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도 개신교계와 학계가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기대해 본다.

종합토론

좌장 :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메모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5차 학술심포지엄

개신교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퍼낸날 2023년 10월 31일

퍼낸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교회관 704호 (우)03129

홈페이지 ncck100.or.kr

E-mail ncck100@kncc.or.kr